

## 마르크스·레닌主義 극복에 關한 研究

임 의 택  
경영학과

### <要 約>

社會의 進化는 必然的 革命이 아닌 目的活動的 改善과 漸次的 進化에 依한다.  
生産樣式은 生産의 區分에 不過하고 生産力과 生産關係는 經濟的 概念이 아니다.  
生産力의 發展은 技術과 科學發展에 直結되고 이는 다시 人間精神 作用의 所産이며 單純한 物質의 힘이 아니다.  
昨今の 東歐事態는 지난 40年以上 적어도 外形上으로 굳건히 維持되어온 마르크스·레닌主義가 종말로 치달고 있음을 反證하는 것이다.

---

## A Study on the Overcoming of the Marks-Lenin Ideology

Lim, Tey-Tack  
Dept. of Management

### <Abstract>

The social improvement depends on the gradual evolution of the purpose-sensitive activities, not on the inevitable revaluation. The mode of production is just a means of production analysis and the relationship of production and productivity is not a economic notion. The advancement of productivity directly relates to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also it is the result of the human mental activities, not a simple material energy.

The recent affairs of Eastern Europe is strong evidence to foretell the end of Marks-Leninism which has been un fallingly, preserved over the last forty years at least superficially.

---

## 1. 序 論

우리는 Lenin이 맑스主義에 무엇을 添加했으며 맑스主義를 어떻게 實用化했는가를 알아보지 않으면 프롤레타리아의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理解할 수가 없다. 맑스主義의 哲學的인 特徵은 理論과 實踐을 統合한데 있었다. 그러므로 哲學은 프롤레타리아없이 實現될 수가 없고 프롤레타리아는 哲學없이 그의 課題를 遂行할 수 없다고 한다.<sup>1)</sup>

그리고 哲學이 解放을 爲한 頭腦라면 프롤레타리아는 그 心臟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의 이데올로기를 맑스·레닌主義라고 부른다.

맑스·레닌主義는 말하기를 “資本主義는 그 生來的 有機物缺陷 卽 循環的 經濟恐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全般的 危機의 時代에 들어가는데 이는 社會體制의 日常的 事態이고 資本主義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모든 內閣의인 힘이 弱化하여 滅亡한다.

그러나 先進產業國家에 있어서 單한件의 프롤레타리아 革命도 없었고 資本主義體系가 最後의 崩壞로 接近하고 있다는 明白한 證據도 없다.”<sup>2)</sup>

1930年代에 資本主義가 甚한 不景氣로 獨逸 佛蘭西 英國에서 革命的 勞動階級의 運動이 있었으나 그것은 지나가고 資本主義는 2次大戰이 일어나 活氣를 回復하였다. 빠른 速度로 資本主義가 팽창하고 革命的 분위기는 消散하여 福祉國家의 創設에 따라서 마르크스의 많은 豫言的 모델은 그 虛僞가 證明되었다. 또 그 追從者에 依한 이 法則의 精巧化와 擴大가 實現되지 못하였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復活과 20世紀에로의 持續까지도 豫見하지 못하였다. 그의 復繼者들도 資本主義의 復活이나 非資本主義國家에서의 革命的 運動의 出現을 豫期치 못하고 切迫한 資本主義의 滅亡을 豫見했을 뿐이다.<sup>3)</sup> 레닌은 生時에 “中國은 러시아의 1905年을 맞이하게 될것이고 革命은 러시아에서 中國, 引渡, 中近東을 거쳐 巴里로 들어갈 것이다”고 하였다. 그의 이런 見解는 先進資本主義 社會에서는 볼셰비키 革命方式이 不適合하며 可能할수도 없다는 것을 自認하고 나서의 볼셰비키 革命方式의 候補地物色과 展望이었던 것이다.<sup>4)</sup>

베른슈타인을 비롯한 獨塊系의 指導的 마르크스主義者들은 歐羅巴의 資本主義發展에 對應하기 爲하여 마르크스主義를 修正하고 社會關係의 發展은 共產黨宣言(Manifesto)에 技術된 것처럼 行해지고 있지 않으며 時代의 進步는 그것에 技術되어 있는 資本主義 死滅의 必然性을 無視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도 當然히 時代에 맞추어 修正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베른슈타인 등은 資本主義가 必然的으로 崩壞되는것이 아니라하고 勞動玄法, 勞動組合, 消費組合, 地方自治 等の 社會改良政策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sup>5)</sup>

오늘날 우리가 맞서고 있는 共產主義의 虛構과 弱點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고 生覺한다. 어떤 見解에<sup>6)</sup> 依하면 共產主義와 對決하기 爲한 對比策과 理論的 代案은 반드시 宗教的인

1) Marx, Einleitung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 philosophie

2) 梁好民, 마르크스의 基本思想과 現代 月刊朝鮮(1983.3) p. 62.

3) 金昌順, 共產主義 運動史, 共產主義 理論과 實際(韓國反共聯盟) 1968, 5 p. 173.

4) 橫產宏章, 소련 폴란드 中共을 通해 본 마르크스의 誤算 新紀元社 1983, p. 38.

5) 金昌順, op, cit, p. 170.

6) 國際勝共聯合, 새 共產主義批判 成和社(1981), p. 3.

理念이어야 한다고 한다. 卽 統一原理에 依하여 그 代案을 찾고자 한다. 著者의 이름을 分明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 宗教的 見解에 依하면 自由陳營의 政策의 貧困과 脆弱性이 高次的인 思想, 體系를 갖지 못한데 基因한다고 하고 또 共產主義의 궁극의 目的이 宗教를 抹殺함으로써 世界를 征服하는데 있다고 보아 反共理念이며 따라서 本質上 眞正한 宗教와는 共存할 수 없는 共產主義와 對決하기 爲해서는 宗教的인 理念으로 對擴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닌은 하루아침에 議會를 解散하고 다른 左派政黨(SR黨)을 비롯한 모든 反對派를 없애버린 當事者다. 그리고 이른바 부르주아 民主主義라고 그들이 부르는 自由民主의 裝置를 完全히 破기해 버리고 共產黨-黨體制를 진짜 民主主義라고 主張한 장본인이다. 그는 또 獨逸社會民主主義는 背信者, 修正主義者라며 맹공한 사람이다. 레닌은 또한 前衛黨論과 民主集中制라는 獨裁理論을 體系化한 元祖다.

歷史變革의 眞理를 担持한 者는 오직 프롤레타리아뿐인데 그 眞理를 解釋하고 향도하는것은 프롤레타리아 大象 自身들이 아니라 小數의 職業的인 음모가들 卽 共產黨이며 그 共產黨도 軍隊式을 模仿하는 鐵血의 規律로 이끌어야 한다고 설파한 장本人이다.

이렇게 해서 레닌은 이른바 소비에트 모델이란 것을 만들었다. 勞動者, 農民, 兵士 其他民族들로 構成되는 소비에트 制度가 진짜 民主主義라는 것이다.

그러나 實際로 소비에트는 無力化돼버리고 勞動組合도 國家機關으로 編入되고 民主集中制의 民主는 사라진 代身 집중된 남게된 것이 바로 레닌以來의 소련 불세비키 體制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基礎가 되는 唯物辨證法, 唯物史觀 資本主義解制, 社會主義에 對한 批判으로 終末論的인 情勢보다도 歷史의 開放性에 對한 勇氣가 참다운 自由의 伸張에 이마지 힘을 陳述코자 한다.

## II. 唯物辨證法과 그 批判

엔겔스는 辨證法的 唯物論을 가지고 그 當時의 自然科學的인 研究業績들을 解釋하면서 包括的인 世界觀을 세우려고 했다. 그는 自然 歷史 社會를 포함하는 人間의 全體的인 生活現實의 世界를 物質과 여러가지 運動形式들로서 理解하려고 했다. 그러나 엔겔스는 여러 存在 領域들 사이에 質的인 差異 곧 生命이 없는 物質, 生命이 있는 物質 그리고 意識이 있는 物質 등의 質的인 差異를 認定했다. 이러한 存在領域들 사이에(辨證法的 飛躍)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辨證法的 飛躍을(量的인 變化의 質的인 變化에로의 轉換)이라고 說明했다. 이러한 說明을 통해서 그는 存在 領域들 사이의 質的인 差異를 認定하면서 唯物論의 世界觀을 確立할 수가 있었다.

보헨스키·니이마이에게 依하면 共產主義辨證法은 方法이 아니라 實在에 對한 一般的敎理(實體論)와 形而上學이라고 한다. 이러한 分類는 唯物論的 要素가 남은 自然科學的 唯物論으로부터 나왔고 辨證法은 헤겔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두가지 根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辨證法的 唯物論에 對하여 重要性을 가진다고 한다. 辨證法的 基本命題에 對하여 內容面에서 볼 때 레닌은 열여섯개 엔겔스는 세개, 스탈린은 네개의 基本命題를 列擧하였다. 이들 中에서

重要한 것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가 있다.<sup>7)</sup>

① 相互關係의 法則 ② 樂觀的 進化的 法則 ③ 必然性的 法則 ④ 飛躍의 法則 ⑤ 矛盾의 法則 이러한 命題들의 內容과 그 矛盾點들을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相互關係의 法則

모든 事物과 現象은 密接하게 相互關連되어 있다고 하는 이 法則은 共產主義의 가장 重要하고 根本的인 教理이나 그들 自身이 皮相的으로 說明하고 있기 때문에 理解하기 어렵다. 이 法則은 스탈린이 明白히 한바와 같이 單純히 事物과 現象이 서로 相對方에게 影響을 주고 서로 依支하고 있다는 常套語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 內包하는 意味는 넓다. 部分에 對한 全體의 優位를 主張하는 헤겔의 學說을 意味하며 形而上學的 集產主義를 뜻한다. 個人은 오직 全體안에서 全體를 통해서만 依存하므로 個人은 全體를 爲해서만 存在한다는 것이다. 이 分析에 依하면 오로지 世界全體만이 完全한 實體가 된다. 그밖의 다른 모든것은 이 全體內에서 하나의 契機로서 辨證法的으로 存在할 뿐이다. 個人은 社會를 爲해서만 存在하고 活動하게 된다.

個人을 重視하는 것은 이 法則의 當然한 歸結이다.

相互關係의 法則에 關하여는 前述한 바와 같이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宗教的 見地에서 본 또하나의 批判이 있는데<sup>8)</sup> 이에 依하면

“辨證法이 이러한 相互關連을 밝혔을 뿐이며 그 事實이 왜 있게 되었는가 하는 理由에 對하여는 말하지 않았는데 또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다만 나타난 事實을 事實하는 것만이 重要하였고 또 이것이 辨證法의 方法의 全部였다.

어떤 事實이나 科學이 있게 된 動機와 原因은 無觀하고 가정만 다루고 있다. 辨證法은 뿌리 없는 나무요 土台없는 建築이다. 妥當한 答辨은 宇宙가 目的을 가진 巨大한 하나의 有機분라는 것을 是認해야 한다. 心臟, 肺, 胃 等 人體의 여러 機關을 生覺하면 이 機器관들은 相互關連을 맺고 있으나 이 關連을 維持하면서 스스로 不斷한 變化發展을 해나간다. 이 變化發展은 自身과 全體를 살리기 爲한 合目的的인 것이고 育目的인 것이 아니다.

萬物의 相互關係는 主體와 對象의 授受關係이고 關係는 無數하게 終橫으로 맺어져 있고 巨大한 有氣體를 이루고 있어 하나의 目的을 指向하는데 그것은 神에 依하여 創造된 創造의 目的을 指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樂觀的變化的 法則

모든 것이 보다 나은 어떤 것으로 發展하는 狀態에 있다고 하는 法則이다. 여기에는 두개의 法則이 있는데 첫째로 物質과 物質運動의 諸法則 以外에는 이 世上에 變하지 않는 것은 또 永久的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變化는 漸進的인 進化的인 것으로서 繼續的으로 形態의 改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여기 헤겔 學派의 두가지 主張이 있는데 이는 18世紀부터 主張되었던 것이고 레닌도 이것을 是認하면서 萬物의 過渡的인 性格에 關한 英겔스의 著述中에서 引用하였다. 이러한 樂觀主義를 實證하기 爲하여 古典으로부터 引用하는 以外에 다윈의 進化論이 항상 引用되었다.

7) 보헨스키, 니이마이아어共編, 共產主義 批判全書 第1卷 韓國反共聯盟, 1964, p. 43.

8) 國際勝共聯合 *op. cit.*, p. 191.

그러나 實際로 이러한 樂觀主義는 事物이 보다 나은 狀來를 爲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信仰이며 19世紀에 만연하였던 것이다. 哲學者 헤라크로데스는 萬物은 鬭爭으로 生진다고 하였고 萬物은 流轉하고 다시 같은 흐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辨證法의 基本的 아이디어가 運動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軌道속에서 보다도 無運動속에서 論議는 쉬어진다. 映画의 한 토막처럼 宇宙의 時間속에 無運動인채 떠 있는 宇宙의 한 모습에 우리는 기우러진다. 生覺컨데 停止한 狀態에서 患者의 手術을 容易하게 하기 爲하여 마취를 하는 것이며, 停止한 狀態에서 車修理를 더 잘 할수 있다. 또 生覺컨데 發展의 變化라고 하는것은 이른바 佛敎나 物理, 化學과 生物學 및 地區化學 其他 天文學에서 말하는 別の 生成과 消滅을 包含하는 循環의 작은 一局面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의 中學校 學生程度의 水準이 이르면 벌써 循環의 法則<sup>9)</sup>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인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基礎的 哲學은 마치 그 적은 局面이 全體인 것처럼 錯覺과 誤解에서 그것이 眞理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 必然性的의 法則

現存하는 모든 앞으로 存在할 모든 것은 必然的으로 存在하며 存在할 것이라는 法則이다.

共產主義者들은 헤겔의 觀念論을 婦人하였지만은 그의 辨證法은 完全히 引繼하였다. 辨證法은 本質的으로 헤겔의 哲學에 續하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發展이 絶對的으로 必然的이라고 한다. 辨證法的 唯物論은 自然과 社會가 偶然이나 宿命에 依하여 支配되는 것이 아니고 必然性에 依하여 支配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것은 客觀的인 世界에 存在하는 모든 事物이 必然性에 依하여 支配되는 것을 意味하므로 事物은 客觀的 法則에 依하여 創造된다고 하는 것이다. 發展이 問題되는 對象의 內部法則으로부터 招來된 때에는 必然的인 것이라 하고 外部的 要因에 依하여 招來된 것은 무엇이던 偶然的이라고 한다.

따라서 豫를 들면 暴風雨때문에 파괴된 樹木은 이런 意味에서 偶然的인 것이나 어느 共產主義者로 하여금 그들이 偶然性的의 存在를 認定한다는 것을 主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世界를 全體로서 볼때에 우연성이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그와는 反對로 모든 事物은 必然性에 依해서 支配되는 것이 明白하다고 한다. 그밖에 共產主義者들도 人間의 自由를 認定한다고 하나 그러나 그들의 自由는 우리가 生覺하는 自由와는 다르다. 자주 引用되는 英겔스의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自由란 自然法則으로부터의 獨立을 夢想하는것이 아니고 이러한 法則을 認識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法則을 特定한 目的을 爲하여 計劃的으로 作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이 自由意志를 否定하는 것은 이러한 事實에서 緣由하는 것이다. 그들은 人間의 行動을 全的으로 決定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人間이 自然을 支配할 수 있는 限自由롭다고 말할 수 있다고 生覺하고 있다. 客觀的인 世界의 모든 事物이 自然과 社會가 偶然이 아닌 必然性에 依하여 支配된다고 봄으로써 共產主義者들은 行動의 自由를 正正하고 人間意志가 自然法則처럼 決定的이라고 한다. 이것은 人間의 目的活動에 對해서도 이를 無視하

9) 李元燮譯 莊子 下卷 三中堂 文庫 1975, p. 49.

는 結果가 되므로 필경 自己矛盾에 빠지고 만다.<sup>10)</sup>

生覺컨데 必然性的 法則은 確率論의 法則을 無觀하므로 妥當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豫컨데 自然界에 있어서도 물이 반드시 0℃에서 氷結되지 않는 過冷却의 現象이 存在한다.

勞動三權에 依하여 政黨하게 勞動者가 罷業이나 團體行動을 하고 있어도 社會는 그것을 支持하지 않는 境遇가 있음이 社會學의 原理로서 認定되고 있는 것이다. (豫로서 長期화된 89年度 現代重工業의 罷業이나 團體行動으로 蔚山市民이 이를 認定하지 않는 경우)

#### · 飛躍의 法則

發展은 漸進的인 것이 아니고 새로운 質을 創造하는 突然한 飛躍에 依하여 이루어진다는 法則이다. 共產主義 辨證法에 依하면 發展은 새로운 質로서의 飛躍이라는 手段을 通하여 이루어진다. 辨證法에 依하면 事物의 發展은 矛盾에 基因하고 모순이 있는 곳에 對立과 鬭爭이 생기고 對立鬭爭이 있는곳에 發展이 생긴다. 그런데 이 發展은 平坦하고 미끈한 連續이 아니라 突然한 質的變化 卽 연속의 中斷과 狀態의 飛躍이 나타나는 過程이며 同時에 否定의 否定에 의하여 前進과 復歸의 方向을 取하는 그러한 發展이라는 것이다.

레닌主義에 뿌리는 分明하고 있는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陳述한다.

“形而上學과는 反對로 辨證法은 發展過程을 量的 變化가 質的 變化에 이르지 못하는 單結한 成長 過程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姿細한 感知할 수 없는 量的 變化로부터 明白한 基本的 變化로 質的 變化로 移行하는 發展 卽 質的變化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狀態로부터 다른 狀態로의 飛躍의 移行的 形態를 取하면서 急速하게 突發적으로 發展하는 것으로 본다.

人間社會의 發展은 조그마한 社會的 變化에 依하여 마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眞正한 進歩는 어떠한 急激한 發展 卽 革命에 依해서 實現될 수 있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스탈린은 이 點에 對해서 “政策上的 過誤를 避하기 爲하여 우리는 革命家가 되어야 하며 改良主義者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論及하였다.

이 點에 關한 마르크스의 例擧는 다음과 같이 漸次性的 中斷을 證明하려 하였다. 卽 물이 100℃가 되면 끓고 氷點이 되면 얼고 새끼줄에 物件을 달고 그 重量을 더해가면 끊어지고 限度를 넘어서 壓縮된 氣가 汽館으로 들어가면 폭발되는 等の 例이다.

이를 批判적으로 볼때에 우리는 이들 列擧가 漸次性的 中斷임에는 틀림없으나 發展이라는 無觀한 現象임을 알 수 있다. 社會發展의 理論의 基礎를 爲하여 發展과 無觀한 例를 드는 것은 自家撞着이며 自然界의 現象은 모두 調和로운 漸進的 發展이며 마르크스의 理論을 土台지워 주는 현상은 하나도 없다. 四時 季節의 變化 人間의 成長과 老化 植物의 開花와 結實, 물이 서서히 증발하는 것, 모든 것은 突然的 變化가 아닌 連續的 漸進的 變化이다. 突然的 變化를 거치지 않고 점차적으로 연속적 과정을 거치는 質的變化는 얼마든지 存在함에도 不拘하고 마르크스는 어찌하여 漸進성과 中斷과 飛躍의 破局을 거쳐야만 發展이 온다고 生覺하였던가? 그것은 暴力에 依한 革命을 合理化하기 爲한 方便으로써 그러한 主張을 한것이다.

마르크스는 量的變化가 先天的이고 質的變化는 後先的이라는 意味로서 兩變化의 關係를 說

10) 金斗憲, *op, cit*, pp. 37-38.

明하고 있다. 그러나 質的變化는 物理的 意味의 量的인 大小의 變化, 輕重의 變化強弱의 變化보다는 構造的 形態의 變化에 依해서 오는것이 더 事實이므로 그런 點에서 마르크스의 量의 概念은 심히 愛昧하다고 할 것이다.

계란과 병아리의 關係를 본다면 具體的인 병아리의 形態가 나타나기 前에 계란의 段階에 이미 그 병아리의 形態의 原型이 理念的으로 存在하였던 것이다.

發展에 있어서 變化는 요컨대 量的 形態의 質的으로 모두 調和的 漸進的 平和的이며 決코 突發的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 矛盾의 法則

發展의 原動力은 事物의 本質 그 自體內的 矛盾과 鬭爭에 있다는 法則이다. 헤겔과 共產主義者에 依하면 어떤 發展의 背後에 있는 動的인 힘은 矛盾의 힘인데 이러한 힘은 모든 事物에 內在해 있는 것으로 生覺되고 있다. 이들이 使用하는 用語法은 適切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른바 辨證法上 矛盾은 論理上의 矛盾이 아니고 反對되는 경향을 뜻하기 때문이다. 卽 矛盾은 現實自體의 本質을 構成하면서 충돌하는 基本的 過程의 特質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헤겔의 有明한 語句 卽 “反對의 統合”은 矛盾의 뜻을 暗示한다. 모순은 現實이 可變的이라는 觀念을 가르킨다. 矛盾은 辨證法 哲學의 門을 여는 呪文이다.

反對되는 對立하고 있는 힘 사이에 鬭爭이 벌어져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必然的으로 一方이 他方에 依하여 파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괴는 辨證法的이라고 한다. 낡은것이 파괴하는 하나 代置되는 것이며 그것은 그와 反對되는 것으로 變化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새로이 이루어진 狀態는 後에 第三要素에 依하여 對立되는데 第三要素는 새로 이루어졌던 狀態를 파괴하고 그것을 代置하게 되며 이러한 過程은 無限히 繼續되며 이리하여 一般的으로 生活史 特別 社會史는 이러한 一連의 파괴 鬭爭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헤겔은 主人과 從僕의 例를 든다 이때 各自는 地方의 矛盾이 된다. 이 矛盾은 同一人이 主人이다. 아니다를 同時에 主張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複雜하고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問題에 關한 레닌의 가장 重要한 發表는 다음과 같다.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 對象의 本質 그 自體에 있는 矛盾을 研究하는 것이다.

- ① 分析과 綜合의 結合
- ② 概念을 그 自體의 要素로부터 規定하는것
- ③ 事物 그 自體內에 있는 矛盾되는 要素 그 自體의 否定과 모든 現象中에 있는 矛盾되는 힘과 경향

以上이 辨證法의 第要素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第要素는 보다 상세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이 表現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이러한 對立物의 鬭爭 또는 展開
- ⑤ 對立物의 總合 및 統一으로서의 事物
- ⑥ 이러한 對立物의 內的 矛盾 경향과 側面

또한 自己運動의 源泉의 認識에 集中的으로 直接的 主義를 하는것은 그 해석 方法이 生動的이고 모든 存在의 自己 運動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것만이 飛躍, 連續性的 中斷, 對

立物로의 轉化와 낡은 것의 消滅과 새로운 것의 發生에 對한 理解를 可能하게 한다. 對立物의 統一은 條件的 臨時的, 過度的, 相對的이다. 相互排除하는 對立物의 鬭爭은 發展과 運動이 絕對的인 것과 같이 絕對的이다.

이와같이 矛盾의 觀念은 마르크스主義者가 社會的 世界에서 社會分析을 하는데 哲學的 支柱가 되고 있다.

마르크스의 發見에서 가장 有名한 것은 資本의 蓄積인데 資本主義의 性格上 企業成長으로 利益增進과 膨脹을 追求하나 이는 더 큰 體系의 活力을 침식하며 無政府的 競爭으로 長期的으로는 除去된다는 것이다.

資本主義 過程은 成功의 裏面에 存在하는 問題에 依하여 包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넬부론너(Heilbroner)는 이 問題를 批判的으로 보아 社會 過程內의 충돌의 存在가 반드시 矛盾이라고 하기에는 不充分하다고 하고 大企業의 出現은 資本主義를 讚美하는 것이며 社會主義의 쟁기가 大企業 成長의 方法을 技術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即 辨証法으로 展望할때 그것은 關係를 洞察하거나 因果의 連鎖를 洞察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칼 포퍼(Karl popper)는 矛盾의 辨証法의 使用이 感覺과 意味에 反한다고 하였다. 포퍼는 正論, 反論, 合論의 論議를 批判하였는데 正論이 論理的 反對物로서의 反論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正反合의 公式은 마르크스나 헤겔이 使用하지 않았고 피히테(Fichte)가 使用한 말인 것이다.

우리는 內在하는 可變의 矛盾의 辨証法의 側面을 하나의 基本的이고 挑戰할 수 없는 假定으로써 모든 現實에 놀릴 수 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그렇게 되면 그것이 事物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게하는 類語反復(tautology)은 실지언정 機能的 有用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일부론너(Heilbroner)의 指摘처럼 宇宙自體는 單純한 흐름이고 知覺과 理解로 統合의 特性을 만들때 統合的이 된다. 例컨데 銃의 發砲에 의한 폭약의 폭발과 反動은 粒子의 運動과 物質의 反作用을 關連시킬때에 限해서 矛盾이 된다.

人間의 知的인 干涉없이 이 兩者는 結合하지 않는다. 人間이 이를 統合시키므로 因하여 自然의 過程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統合的 傾向에 빛을 던지게 된다.

宇宙와 달리 社會는 政治的 經濟的 和的 統合없이 그 社會的 世界에 意味가 없다.

矛盾이 自然속에 依存하는가에 對하여 헤겔은 矛盾이 모든 現實에 浸透하는 思想과 存在의 同一性에 言及하였다.

헤겔의 이러한 觀念論的 基礎는 自然過程을 辨証法的思想和 關連시킴에 있어서 마르크스의 그 追從者들이 이를 拒否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綱要(Grunderisse)에서 全社會的 生産活動의 主體이며 基礎인 人間으로부터 始作하고 있다. 그러나 人口는 이를 構成하는 階級을 내버려 두면 抽象이 된다. 階級은 賃金, 勞動, 資本等 그 立脚한 要素를 모르면 空虛한 것이 된다.

이들 要素는 對象, 分業, 價格 등을 前提로 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처럼 人口로부터 始作하면 全體 概念의 混亂을 가져 올것이다.

마르크스는 個人에 對한 深奧한 分析을 하고 있는데 만약 孤立한 個體의 表面을 보고 그 社會的 뿌리를 보지 않는다면 概念의 混亂이 생길 것이다.



經驗的 知識의 追求에 있어서 不可避한 恣意의 要素는 最小限으로 줄여야 한다. 卽 論理法則과 科學法則을 따라야 한다. 前者는 直線의 論理感覺에 違背해서는 안되고 後者는 節次的 順理에 따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마르크스 辨証法은 自己들의 節次가 科學的 性質을 가졌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餘他的 接近法과는 科學의 定義에 差異가 있다. 科學이란 世界에 對한 情報을 얻는 方法이며 이는 論駁可能한 假定的 系統的 說明이나 公式化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科學은 그렇지 않다. 마르크스의 科學이란 시험할 수 있는 假定을 考察해 내는 것도 아니고 外觀을 꿰뚫어 그속에 감추어진 本質에 到達하는 것이라고 한다. 實證哲學(Positivism)은 攪亂된 表面을 透過하여 自然속에 감추어진 規則을 發見하는 것이나 反對로 辨証法的 見解는 社會가 우리에게 賦課한 體系的 歪曲(distortion)을 透過하여 단순한 規則아닌 矛盾關係와 같은 眞正한 本質을 發見코저 한다. 宗教的,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歪曲은 우리의 透視力에 影響을 주어 잘못된 知覺을 준다는 것이다. 卽 事實보다도 關係를 더욱 強調한다. 마르크스主義者는 社會的 事實의 診斷을 오직 그 試驗節次에만 다르게 하여 自身의 科學的 性格을 억지로 確立코저 하나 그 試驗節次란 經驗的 實證主義에 由來하는 것이다. 資本主義의 모순을 마르크스가 가장 현저하게 分析한 資本集中과 人口의 賃金勞動者에로의 轉落은 歷史에 依하여 依存하고 있는 것이지 辨証法의 方法에 依한 것이 아니라는 批判을 免치 못한다.

李容弼 教授에 依하면 마르크스가 使用하는 科學은 이 單語가 正確히 또 客觀的으로 使用되는 경우에 그 意味는<sup>12)</sup> 知識이라는 單語의 使用에 가깝다고 하였다. 이는 적절한 表現이라고 生覺된다. 따라서 科學이라는 表現에 현혹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레닌은 敵對的 矛盾關係가 社會主義下에서는 消滅한다고 하였으나 生覺컨데 敵對關係가 和解로서 消滅 可能함은 自明한 原理임을 그는 일지 못하였다. 世界는 相對的으로 볼때 矛盾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意味가 아니다. 矛盾은 社會過程內에서는 矛盾이라 부르기에 不充分한 程度의 충돌인 경우가 있으므로 共產主義者들은 矛盾을 恒常 具體的으로 研究를 해야 한다고 注意를 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弱點을 是認한 셈이 된다.

唯物辨証法에서 核心이 되는 모순에 關하여 물의 相變化와 같은 自然現象을 人間社會에 適用할 수 있느냐가 問題되는바 例컨데 돈을 모아 勞動者가 資本家가 되는 理論이다. 그러나 共產主義는 이 兩者가 矛盾關係로서 革命에 依하여 飛躍的으로 새로운 階級이 된다고 본다.

이것은 事實에 反한다. 漸進的 繼續的 變化나 增量 中間階級는 認定하지 않는다. 이러한 難點의 打開을 爲하여 毛澤東은 그의 有名한 矛盾論에서 敵對的 矛盾과 非敵對的 矛盾으로 分類하고 있다. 이쯤되면 共產主義 理論도 많이 달라지고 無慈悲한 鬭爭도 아랑곳 없이 될것 같기에 벌써 理論의 弱點을 露出하는 셈이 된다.<sup>13)</sup>

結論的으로 辨証法의 限界는 存在가 可變的이라고 하지만 이 表現은 直觀的으로는 魅力的이나 知的 捕捉이 어렵다고 하는데 있다. 또 矛盾의 確認手段을 주지않고 있어서 概念이나 科學의 合法性 試驗을 爲한 非辨証法的 技術에의 依存을 調和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에서 스탈린에 이르기까지 矛盾의 論理를 말하고 있으나 그들의 推論의 實證을 提示하고

12) 李容弼, 共產主義理念批判, 大旺社(1982), p. 82.

13) 金斗憲, *op. cit.*, p. 63.

있지 않다.

矛盾에 關하여 부연해서 말한것은 왜 物質世界가 矛盾을 露呈시켜야 하는 것인가? 왜 觀念의 發展처럼 物質이 同一한 樣式으로 發表해야 하는지? 왜 人間의 價値를 너무나 돌과같은 物質的 對象에게 歸屬시키고저 하는 物法論의 原始로 復歸코저 하는지? 어떤 根據에서 自然의 秩序가 辨證法의 作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理解하기 어렵다.

또 萬一 世界가 하나의 機械라면 그것은 過去에 있었던 것만이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性質을 發展시킬 수 없다. 萬一 人間이 그와같이 把握된다면 그의 意識의 根源과 成長을 說明할 수 없게 된다.

또 旧 唯物論者들이 受動的인 感覺에 依하여 知識이 獲得된다고 하였는데 感覺이 순수하게 受動的이라면 왜 이것들이 意識的 活動에서 생겨나는지를 說明할 수 없다.<sup>14)</sup>

레닌에 依하면 絶對的 眞理에의 接近의 限界는 歷史적으로 制約된 것이지만 絶對的 眞理의 實在은 어떤 制約도 없이 認識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이데올로기는 歷史적으로 制約된 것이지만 絶對的인 眞理에 해당된다는 것을 믿어왔다. 그런데 人間의 認識이 正當하냐 又は 不當하냐는 것은 實踐을 통해서 分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實踐에 依하여 올바른 認識과 그릇된 認識이 判別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實踐의 概念을 더 分析하지는 못했다.

레닌의 實踐概念은 事實 自然科學的 實驗과 技術的인 作業과 社會的 政治的 實踐을 모두 無分別하게 包括하고 있었다.

### III. 唯物史觀과 그 批判

마르크스가 歷史의 形成의 統一的인 性格을 前提하고 그 統一的인 關係構造를 追求한 것은 헤겔의 觀念注意 哲學의 影響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마르크스 主義者들도 흔히 歷史的 唯物論을 하나의 普遍的 法則으로 生覺하고 그것을 普遍的으로 適用시키려고 한다. 마르크스의 歷史的 唯物論은 資本主義의 時代를 分析하기 爲한 하나의 假設, 또는 하나의 研究原理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社會科學에 있어서 이룩한 革命은 그들의 主張에 依하면 “社會에는 무엇이든 秘密한 彼岸의 힘이란 것은 전혀 存在하지 않으며 人間自身이야말로 歷史의 創造者라는 것을 보여 주었고 歷史는 荷等 外部로부터의 干與를 必要로 하지않는 自然的 過程이라고 하는 歷史觀 또 人間이 自己의 歷史를 創造하는것은 恣意에 依하는 것은 아니고 過去의 代表로부터 이어받은 客觀的 物質的 條件을 基礎로 하고 辨證法的 唯物論을 社會와 歷史의 研究에 適用하여 社會發展의 一般法則에 對한 科學的 理論을 낳은것이 史的 唯物論 또는 唯物史觀이다”고 한다.

卽 史的 唯物論은 社會에 關한 모든 科學의 基礎이고 다른 社會科學을 爲한 認識의 方法이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辨證法이 歷史에 對하여 어떤 실마리를 提供하고 있다는 主張은 思考過程의 說明으로라도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14) 李容弼, *op. cit.*, p. 63.

칼·페틴(Karl Federn)이 指摘한 바와 같이 歷史는 始作이나 終末을 모르는 끝없는 흐름이며 辨證法은 出發點을 提供하지 않으므로 그 階段의 어떤것이 正反合인지 決定할 수 없다. 이는 無責任한 探究方式이 된다.

마르크스는 前段階의 內的矛盾에서 생기는 모든 社會의 復續의 段階는 보다 高次的 形態를 構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萬一 歷史가 進步의 持續的인 記述이었다면 모르거나와 그것은 消滅과 衰退에 있어서 虛構이며 辨證法은 이 部分에 對하여 適用될 수 없다.

마르크스는 그의 著書 「政治經濟學批判」에서 生産의 要素로서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二分法을 主張하였는데 生産關係란 物質的 財貨의 生産過程에 있어서 人間이 맞는 關係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렇게 이롭지 않다 이는 經濟的 關係라고도 한다.

社會構成體에 있어서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特質은 무엇이며 그 各 社會構成體의 土台, 生産關係위에 선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上部構造는 어떤 方式으로 發表하였던가? 이에 關하여 마르크스·엥겔스의 이른바 生産樣式을 보면 이는 生産分配의 相異한 形式을 確認分離하는데 使用되는바 原始共同體의 生産樣式 아세아의 生産樣式 封建生産樣式 資本主義生産樣式 등으로 부르는바 이는 바로 歷史의 區分에 不過하고 그 基準으로 政治나 家敎生活이 아닌 經濟的 生活을 組織하는 相異한 體系를 使用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生産力은 필경 生産한 物件이나 商品을 製作하는 作用이 人間의 精神生活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구스타브 버더(Gustav A. Wetter)는 生産을 철두철미한 精神에 依하여 規定된 現象이라고 共產主義 哲學을 批判하였다. 또 이 事實은 生産力의 分析과 아울러 生産關係의 分析에서 明白하여진다고 하였다.<sup>15)</sup>

生産手段의 所有形式은 生産關係의 本質이다. 그들은 이를 階級關係로 보고 거기에 敵對關係를 認定하였다. 여기에 主義할것은 마르크스·레닌이 生産手段의 所有形式이 이미 資本主義 體制下에서는 變質하고 있다는 事實을 모르고 있다는 事實이다. 資本主義의 核이라고 할 수 있는 株式會社의 發生이 和蘭의 東印度會社였으며 이것은 理事에 該當하는 Dewindhoppers라는 數人 乃至 數十의 無限責任的 機能 資本國家의 結合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 理事의 背後에는 事實上 多數의 匿名의 코멘다 出資群(participanten-massa)이 있었던 것이다.<sup>16)</sup>

버리와 민즈(A.A Berle, Jr. and G.C. Means)는 有名한 著書 「近代株式會社와 私有財産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operty」에서 財産의 變革에 關한 統計的 研究을 하고 있는데 이는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經濟力의 集中과 더불어 所有와 支配와 分離를 다룬 너무나 有名한 研究이다.

버리와 민즈가 가장 發達한 株式會社制度의 본보기로 列舉하고 있는 英國電話通信會社(American Telephon and Telegraph Compancy)라는 50億 \$의 財産을 45萬4000名의 從業員과 567,694名의 株主가 所有하고 있었고<sup>17)</sup> 이미 1842년에 Merrimads會社의 株式은 다음의

15) Gustav A. Wetler, Dialektischer und historischer Materialis mas, Sowjst-ideologie, Hente l. Fischer Bucheri(1962) S. 188.

金斗憲, *op. cit.*, p. 43.

16) 大塚久雄, 株式會社 發生史論, 中央公論社(1959), p. 85.

17) 버리, 민즈 近代株式會社와 私有財産 文雅堂(1966), p. 3, 北島忠男 日譯版.

사람들을 포함한 390명의 사람들에게 의하여 所有하고 있었던 것이다.

經營者, 受託者 80名 女性 68名 商人 46名 製造業者와 職工 45名 事務員學生 40名 法律家 23名 哲學者 18名 農家 13名 3個組織機關<sup>18)</sup> 株式會社의 所有權은 그 機能이 分解되었고 管理 運營權과 議決權을 包含한 處分權, 過失取得權 等으로 나누어져 그 機能이 各己에게 歸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는 生産手段의 所有形式이 生産關係의 本質이고 이를 階級關係라고 보고 敵對關係를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社會主義革命은 勞動者階級이 생기지도 아니한 後進國에서 생긴 것이다. 역기에 對하여 資本主義 植民地關係를 資本家와 勞動者關係로 擬制코저 하는 見解가 생긴다. 그러나 이는 革命을 밖에서 推進코저 하는 希求가 植物을 위로 잡아 땀겨서 成長시키려는 것과 같다.<sup>19)</sup> 또한 이러한 行爲를 不適當한 適應行爲에 依한 Complex解消方法으로 無批判的으로 따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sup>20)</sup>

生覺컨데 後進國에서 社會主義革命이 생기는 現狀은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가 있다. 卽 政權을 奪取코저하는 集團은 어떤 口實을 찾는 法이다. 日本의 明治維新은 沒落한 封建領主들이 政權에 復歸하는 口實로서 德川幕府打倒를 爲한 政治的 슬로건이었던 것이다. 일단 政權을 獲得한 後에 政權維持에 必要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社會主義를 버릴 수도 있고 必要하면 이를 修正할 수도 있다. 우리는 오늘의 고르바초프革命은 레닌打破라는 口號만 없는 사실상의 레닌 克服이라는 것이고 그의 革命은 마르크스主義를 唯一無二한 神學的 眞理의 地位로부터 여러가지 觀點中의 하나, 又是 여러가지 社會主義潮流가운데 하나라는 地位로 世欲化시키는 結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어쨌던 生産力과 生産關係를 批判的으로 볼 때에 이 두 概念은 좁은 意味로 經濟的 概念이 아니다. 生産力은 文化的 遺産과 混合되어 있다. 生産關係는 他階級の 役割을 合法化하고 強制하는 法的, 政治的, 社會的 紐帶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政治的, 社會的, 宗教的 要素까지도 經濟的 要素에 베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全生産株式이 歷史에 關한 物質主義的 見解에 經濟的인 것을 던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生産의 必要性的 周邊에 組織化되었기 때문이지 經濟的 動機가 모든 餘他것을 支配하기 때문이 아니고 賣買等 經濟活動이 人間의 生覺을 指示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르크스는 經濟的 構造의 基礎위에 上部構造가 築成되고 一定한 社會的 意識의 形態가 이에 照應하게 되고 物質的 生活의 生産株式은 精神的 生活過程一般을 制約하며 人間의 社會的 存在가 그들의 意識을 規程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존 프라메나츠(john plamenatz)가 말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主義者는 下部構造에 上部構造의 要素를 포함시켰고 兩者間的 相互關聯性을 마르크스도 認定하게 되었으나 이를 明白히 밝히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의 理論의 拋棄가 되기 때문이다. 안토니오 라브리올라(Antonio Labriola)는 많은 소매와 食量이 있었는데도 北美原住民이 高度文明을 成就하지 못한것은 才能이 없는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마르크스主義者는 經濟的原因을 찾고 있다. 그를 爲하여 歷史的 必然性的 概念을 多意的으로 生覺하고 있는데 전혀 相異한 意味로 알고 있다.

18) *Ibid*, p. 14.

19) 金斗憲, *op, cit*, p. 47.

20) 福武直: 社會學 光文社 1961, p. 258.

여기에 對하여 金斗憲 博士<sup>21)</sup>

헤겔의 辨證法과 포이엘바하(F Feuerbach)의 辨證法的 發展의 理論은 部分과 全體의 關係 및 連結的인 生滅의 變遷過程과 보다 높은 곳으로 끊임없이 上昇하는 連續的 發展을 論하며 唯物辨證法의 相互關係에 異議가 없으나 다만 이 相互關係가 必然的으로만 보는 것이 問題가 된다고 論하였다.

梁好民教授<sup>22)</sup> 마르크스理論을 逆行하는 事實과 反프롤레타리아 革命思想의 潮流도 作用하므로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일어나도 成功과 失敗의 可能性은 同時에 存在하며 窮極의 勝利가 반드시 保障되는 것은 아니라 또 리스키에 依하면 一定한 生産組織은 그 結果를 決定하는 不可避의 論法則에 依하여 支配된다는 것은 問題를 不當하게 單純化하고 있으며 資本主義의 破滅의 結果 共產主義와 無觀한 獨裁政治가 出現할 可能性과 勞動階級이 勝利하여도 共產主義組織을 運營할 수 없다는 것을 發見할지도 모른다.”고 論하였다.

史的唯物論은 요컨대 必然性を 強調하는 나머지 偶然的의 要素를 排斥하고 따라서 唯率論의 法則도 排擊하므로 妥當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偉大한 人物의 出現을 必然性에 돌리는 結果 마르크스 Engels는 나폴레옹도 偶然히 出現한 것이 아니고 그가 아니면 다른 人物이 그 位置에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플라톤·예수 바울이 是를 짓고 哲學理論을 세우고 道德意識을 높이는데 貢獻하였으나 그 業績을 經濟的 過程의 道具로 還元될 수 있다고 生覺되지 않았다. 이 人物들의 歷史形成에 參與한 것을 是認한 것은 歷史가 經濟力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原則과 矛盾되는 것이다.

헷센(B. Hessen)은 뉴턴의 머리위에 사과가 떨어져서 引力的 法則을 發見토록 자극한 것이 經濟的 欲求에 依하여 要請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다.

어쨌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萬有引力的 法則을 發見하였느냐 하는 質問에 뉴턴은 나는 언세가 그 問題에 對하여 生覺하고 研究해 왔던 精神作用의 成果를 얻었을 따름이라고 했다.

레닌의 歸國과<sup>23)</sup> 러시아 革命 코르시카島의 프랑스歸屬과 나폴레옹 出現사이에 必然的 因果關係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偶然的의 要素가 있음을 러셀(Bertrand Russell)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者는 偶然的의 要素를 감안하지 않는다.

現在의 美國과 소련이 거의 同一한 生産力<sup>24)</sup> 위에 하나는 資本主義 하나는 社會主義라는 全然 異質的인 生産關係가 成立하였다. 그러나 史的 唯物論은 類似한 生産條件下에 生存하는 民衆들이 왜 相異한 文明을 發展시켰는지 說明하지 못한다. 또 同一한 基督教이 로마人·스라브人·아일랜드人等 相異한 人種들에게 왜 獨自的으로 받아들여졌는지 說明하지 못한다. 또 同一한 文化的 背景을 가진 人間들에게 依해서 全然 相異한 이데올로기가 지탱하고 있는 理由를 說明하지 못한다.

마르크스와 Engels는 [도이치 이데올로기(Die Deutschlandedogie)]에서 한 時代의 支配的인

21) 金斗憲, *op, cit*, p. 33.

22) 梁好民 共產主義理論과 現實批判全集 1內外文化社(1963) p. 137.

23) 梁秉祐外 大世界の 歷史 第11卷 三星出版社(1971), pp. 270-271.

24) 梁好民 *op, cit*, p. 131.

思想은 항상 支配階級の 思想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上部構造가 下部構造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基督教은 生産關係를 달리하는 古代 Roma에서도 또 資本主義 歐美諸國에서도 如前히 支配的일뿐 아니라 社會主義 소련에서도 아직 말살되지 않고 있다.<sup>25)</sup> 經濟的 上部構造와 下部構造는 흙과 植物의 關係에 있다. 經濟學이 순수 物質的 目的에만 關聯되고 있다는 觀念은 誤謬인 것이다.

엔겔스는 末年에 가서 요셉·불로흐와 슈타르펜부르크에게 보낸 書信에서 經濟的 要因이 唯一한 決定要因이 아니라고 하고 觀念形態가 生産關係에 미치는 作用을 反作用 또는 相互作用이라는 말로서 表現하였다. 일단 相互關係를 是認한 後에 다시 經濟的 要因이 窮極的 決定要因이라고 한 것은 無意味하고 마르크스의 前提가 不完全함을 是認하고 있는 것이다.<sup>26)</sup> 로빈스(R.H. Robins)의 말대로 마르크스의 教義는 經濟學的 觀點에서 形而上學的인 人間動機의 因果關係에 對한 一般的 陳述이다.

로빈스의 指摘에 依하면 經濟學은 物質的 福祉의 原因을 研究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目的에 到達하기 爲한 手段의 稀少性에서 생기는 行態의 經濟的 側面을 研究하는 것이다.

歷史的 唯物論的 解釋은 歷史的 經濟的 解釋이라고 불리어지고 經濟的 主題가 物質的 福祉의 原因이 아니므로 經濟學이 이 教義의 支持를 爲하여 利用될 수 없다.

資本論은 그 結論의 支持를 爲하여 歷史를 尙當히 活用하였으나 그것이 眞理임을 立證하지 못하였다. 랫셀의 말과 같이 世界의 政治生活에서 比較的 커다란 事件은 物質的 條件과 人間의 情熱과의 相互作用에 依해 決定된 것이었다.

보헨스키와 월터 및 니이마이이等은<sup>27)</sup> 共產主義哲學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否定的 批判을 加했다.

① 共產主義哲學은 權威에 立脚한 貧弱한 敎理이다. 卽 實在論에서 보는 것은 認識할 수 있다는 名題, 唯物論에서 時間과 空間에 있어서 世界의 無限性 樂觀論에서 飛躍의 理論과 矛盾의 理論에서 이러한 순진한 形而上學的 主張은 科學的 方法으로는 證明될 道理가 없다. 이러한 경우 哲學者들은 때때로 演繹法을 使用하거나 또는 現象학을 使用한다.

그러나 이러한 對象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아무도 世界가 無限하며 神이 存在치 않는다는 事實을 본 사람은 없다. 그들도 그 主張을 演繹的으로 推究코져 하지도 않는다. 但只 斷言을 내리고 그것을 그들 古典學者들로부터의 引用으로 뒤받침하고자 할 뿐이다.

② 共產主義者들의 主張이 定式化되는 그 方法自體가 대단히 原始的이다. 그 體系는 尙尙하고 터무니없으며 모순된 主張을 포함한다. 實體的인 辨證法을 論理라고 號稱하나 이를 正常化시킬 命題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可變的이라 하면서 辨證法에 對하여 永久不變의 法則이 있다고 生覺하고 있다. 物質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때에는 物質的인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精神的인 무엇을 나타내기도 한다. 唯物論의 引用은 理解하기 위한 困難한 方法으로 引用하고 있으며 마음이나 精神이 物質的 產物로 불리어지기도 하고 또는 物質的 機能이나 物質的 附屬的 現象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飛躍이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인데 萬

25) *Ibid.*, p. 133.

26) *Ibid.*, p. 135.

27) 보헨스키 월터, 니이마이이, 共產主義의 哲學的 社會學的 經濟學的 教義, 共產主義批判全書 第1卷 韓國反共聯盟(1964), p. 70.

事는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것이며 따라서 存續期間이 있다고 한다.

唯物論은 知識이 對象이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周邊에는 光波만이 存在하고 있다. 색깔이 어찌서 光波의 사진으로 生覺하고 있는가에는 아무런 說明이 없다. 파괴와 鬭爭은 모든 事物에 內在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事物이 자비로운 非相剋의 方法으로 規制되는 例가 있는 것이다.

③ 共產主義哲學은 그 體系化에서 생긴 明白한 變則이 있고 어떤 分析을 통해서도 是正될 수 없는 本質의인 矛盾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矛盾이 共產主義哲學의 基本構造에 屬하기 때문이다.

㉑ 眞理에 對한 絶對的 實在論의 定義와 社會作用主義의 定義 사이에 矛盾이 있다. 眞理는 實際와 符合하며 實際의 描寫, 寫眞 또는 再生이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 眞理가 實際에 符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第一의 敎理에 따르면 다만 하나의 眞理가 存在하나 第二의 敎理에 따르면 眞理는 階級の 수효만큼 存在하게 된다는 모순이 생긴다.

㉒ 唯物論은 世界가 各已 飛躍에 依하여 分離된 여러 層으로 構成되어 累進의으로 되어 있고 그 層은 本質의으로 相異한 것으로 推定되며 다른 한편 모든 事物이 한결같이 物質의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다윈의 進化論속에 反映되어 있고 進化論이란 存在의 標準間에는 本質의인 差異가 없다고 主張하는 理論인 것이다. 卽 이것은 矛盾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主張에서 본다면 精神과 物質 사이에 本質의인 差異가 存在하느냐 하는것은 決定할 수가 없다. 그 理由는 認識論에서는 肯定되고 心理學에서는 否定되기 때문이다.

㉓ 價置論의 敎理에 있어서 헤겔學派의 辨証法은 知的 理論으로서 價値로서 運營되는것이 어느 程度 正當하며 따라서 義務等에도 論及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反面 史的唯物論은 모든것이 物質의 發展法則에 따라서 嚴格히 決定되며 따라서 例컨데 革命은 必然의으로 一定한 時点에서 일어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同時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革命을 爲하여 英雄의으로 鬭爭하는 것이 神聖한 義務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解決할 수 없는 矛盾인 것이다.

辨証法的 唯物論은 一世紀나 뒤떨어진 哲學으로서 現代哲學 思想의 모든 問題를 認識하지 못하고 있다. 現代哲學의 二大陳營 卽 分析學派와 現象學派에 있어서 分析學派는 數學的論理를 科學의 方法과 基礎에 關한 問題를 研究한다. 現象學派는 本體論과 人間의 問題를 다루며 實在主義者는 이 學派에 屬한다. 共產主義哲學文獻에서는 數理學 物理學等的 基礎를 다룬 著書가 없다. 또 存在의 標準, 存在樣式 또는 存在의 범주等的 本體論의 問題를 다루지 아니하였다. 哲學的 人類等的 問題로 卽 고난, 죽음, 人間內部的 關係에 對한 問題를 全體의으로 否認하며 各個人은 이런 問題에 추호도 理解關係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1950年代 獨逸에서 論爭되었던 問題에 對해서 그들의 意見을 밝히고 있다. 卽 우리가 實際를 知覺할 수 있느냐? 全體로서의 世界는 永遠한 것이냐 모든 것이 物質的이나 하는것 等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現代社會의 諸般事項과 社會學的 成果에 關하여 焦眉의 急을 要하는 問題에 對하여 科學的 回答을 論하고 있다.

첫째는 過剩人口의 問題인바 그들의 主張은 “反動主義者 말사스의 追從者인 一部 부르조아 社會學者가 地球는 人口過剩이라는 主張에도 不拘하고 人類는 增大하는 物質的 需要를 滿足

시킴을 위한 온갖 가능성을 갖고 있다. 人間이 人間을 搾取하는 體制와 거기에서 생겨나는 階級鬭爭은 生物學的 生存競爭의 表現이 아니고 歷史的으로 制度的인 一定한 社會的 經濟的 體制的 結果이다. 社會主義體制는 부르조아 社會學者가 地球의 人口過剩의 證明이라고 生覺하고 있는 失業을 없애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階級的 不平等이나 부르조아 社會學이 進步의 永遠한 原動機라고 宣言하고 있는 鬭爭도 없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컨대 環境生態學의 基本知識에 依하면 人口過剩은 먹이의 量에 의하여 自動 調節된다는 原理가 있다. 自然界에 있어서 철새의 移動메뚜기때의 大移動도 먹이의 量과 有關하다. 메뚜기의 大群은 群集效果 Groupette에 의하여 形態의 變異 活動性이 强하게 나타나며 單獨活動에는 메뚜기에 比하여 卵巢의 數가 적고 dispaue(어려운 時期를 이겨내기 爲한 生物化學的 變化에 의한 休眠期間)을 갖지 않는다.

메뚜기의 大群은 누군가의 飛翔에 의하여 자극받아 大移動을 하면서 結局 모두 죽고 만다. 그러나 어딘가에 살아남은 메뚜기는 殘存하여 種族을 保存하고 있다. 이러한 群集效果는 초파리, 바퀴, 진디물, 움(乾麻), 귀뚜라미, 딱정벌레(beetle) 등 그밖에 高等動物에도 存在하며 過剩人口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人口의 自動調節作用을 하고 있음을 認定하고 있다. 크롬비(Crombie)<sup>28)</sup> 그러므로 意識的으로 人口調節을 하는 것은 失業이나 食糧難 問題를 解決하는데 連結되는 것이다.

둘째는 프로이드(Freud)學說에 對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非難이 問題된다. 이들의 主張은 프로이드가 人間을 無意識의 衝動이나 生物本能的의 影響아래서 行動하는 存在로 보고 또 人間行爲는 性欲에 依하여 制約된다고 보기 때문에 人間意識은 無意識이나 本能的의 欲求의 上部構造를 이루는데 不足하고 따라서 이에 依하면 社會關係에 意識的으로 作用하던가 戰爭防止는 不可能하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컨대 프로이드의 學說은 人間의 意識의 本質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人間 本能的의 性質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것을 조금도 卑下할 性質의 것이 아닌 것이다. 例컨대 過去에 쓰라린 일들을 訂正하고 콤플렉스(Complex)를 解消하는 行爲가 無意識行動속에 숨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分明히 意識狀態에서 發芽하여 成長調節되고 있음이 明白하다.<sup>29)</sup>

세째로 마르크스·레닌主義는 토인비의 「歷史의 研究」에 對하여 歷史의 발걸음을 操縱하는 힘이 神意의 秘密한 힘에 의한 것이라고 率直히 記述하고 있는데 對하여 이는 宗教的의 宿命이나 來世의 意味 歷史의 終末에 對하여 論述하고 있다고 非難한다.

生覺컨대 우리는 神을 否定할 必要가 없다. 이점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sup>30)</sup>는 “歷史는 神의 攝理의 舞臺는 歷史의 過程을 通하여 神의 攝理가 그속에 神을 漸次 건설하고 그것이 各民族과 各國家에 存在 意義를 준다.”고 하였다. 하나의 攝理即 神의 攝理가 世界의 모든 事件을 다스리고 있다고 헤겔도 말하였다.<sup>31)</sup>

그러나(Greece)哲學의 發達點은 神話속의 神이 人間위에 있지 않았다. 神은 人間이 만들

28) R. Dajoz, Introduction to Ecology, Hodder and Stoughton(1977), p. 148, p. 140.

29) S. Freud 精神分析學入門 張秉林譯 博英社(1977), p. 59.

30) 韓太壽 辨証法的으로 본 政治思想史 漢陽大論文集 第7輯 1973, 8, p. 223.

31) Hegel, Vernunft in der Geschichte, S. 83 梁好民 op, cit, pp. 66-67.



어 낸 存在였다.<sup>32)</sup> 유대교, 이슬람교, 基督教 等 中東에서 생긴 宗教는 人間의 모멸에서 始作하였다. 人間은 神의 被造物로서 罪를 犯하기 쉽고 보잘것 없다고 보았다. 로마帝國이 기독교 支配下에 놓이므로써 神이 人間의 被造物임을 잊고 神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게 되었다. 中世의 붕괴와 近代의 開幕은 人間을 神의 支配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sup>33)</sup> 末世의 意味에 關해서 마르크스는 “人間은 날마다 自己의 삶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의 子息을 通하여 그 삶을 再生産한다. 이 繁殖과정은 人間의 歷史에 社會的 要素를 導入한다.”

라고 하면서 人間의 未來나 來世는 삶의 再生産인 子息을 通하여 이루어진다고 生覺한 것이다. 이것이 宗教의 來世觀과 對立되는 概念임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sup>34)</sup>

그러나 생각컨대 宗教의 社會的 機能으로 보다 현세의 秩序維持에 寄與하는 側面을 重視하여야 하고 個人의 精神의 安定을 爲하여 나아가 社會全體의 平和로운 生活을 爲하여 眞實로 人間이 宗教를 必要로 하고 있으며 宗教는 個人의 信仰 告白에 依하여 神을 信仰하든 또는 客觀的으로 보아 神의 存在가 假定되든 社會에 奉仕하는 不可欠한 存在 意識을 갖고 있다. 私有財産도 同一한 機能이 있으므로 認定되는 것이다. 卽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에 의하면 私有財産은 탐욕과 罪에 依하여 생기지마는 그러나 하나의 秩序이므로 必要한 것이라고 말하였다.<sup>35)</sup> 생각컨대 人間이 죽음을 免할 수 없는 現實이 바로 來世나 神의 存在를 생각하는 것과 直結된다. 따라서 來世와 神을 否定하는 것은 죽음을 否定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宗教의 最小限의 定義는 다시라에 依하면 靈的存在的 信仰이라고 한다. 아니 이름이라고 命名한 것이 가장 單純한 形態의 宗教는 그의 生覺에 依하면 未開人이 꿈에 나타나는 實體없는 形狀에 對하여 생각하고 살고있는 人間과 그 屍體사이의 差異를 考察할 때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 結果 非物質的인 團體로부터 떠나가는 영혼의 存在를 推測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풀심의 작은 妖情으로부터 天上의 世界의 創造者이며 支配者인 偉大한 靈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의 영혼이나 精靈의 觀念을 發達시킨다고 한다.<sup>36)</sup>

設使 神의 存在가 假設이라고 하더라도 假設은 正當하다. 헤겔과 포이에르바하(F Feuerbach)는 神의 存在가 假設이라는 前提下에 있다. 卽 헤겔은 絕對理念 理性 또는 世界精神은 外部로 나타나 自然 卽 物質界가 되며 自然法則의 形態를 取하면서 同一한 自然現象을 반복하며 自然의 一部인 人間에게 人間精神으로 自己 發現하고 自己 自身을 자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世界史에서 實現되는 理性은 世界 精神이며 이는 결국 神을 意味한다고 하버 마르크제(Herbert Marcuse)는 말하고 있다.

梁好民教授도 이러한 絕對理念의 存在는 하나의 순수한 假定에 不過하다고 하였다.<sup>37)</sup>

포이에르바하(F Feuerbach)는 神이 人間을 創造한 것이 아니라 人間이 神을 創造했다고 斷

32) 토마스 불핀치, 한영순譯, 그리스마르크스로마神話 마당文庫社(1984), p. 7.

33) 金學俊, 마르크스思想의 소련의展開 月刊朝鮮 1983, 3, p. 78.

34)35) 韓太壽, op, cit, p. 223.

36) Godfrey Lienhardt, *Social Anthro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1964)(日譯版 岩波書店) p. 165.

37) Herbert Marcuse, *Reason and Revolution*(1954) p. 229.

定하였다. 그에 依하면 人間이 神이라 부르는 것은 人間을 떠나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이 가지고 있는 本質의 最上の 것 이룬다면 美, 慈愛, 權能 등 超自然的 모습으로 投影된 想像의 反映에 지나지 않는다.

神의 意識은 人間의 自己意識이고 神의 認識은 人間의 自己認識이라고 하였다.<sup>38)</sup>

그러나 거듭 強調할 必要도 없이 神의 存在가 假設이라고 하더라도 이 假設은 正當하며 이를 尊重하고 반들만한 價値가 있는 것은 私有財産이 비록 탐욕과 罪의 結果라 할지라도 이를 尊重하고 保護할 價値가 있기 때문에 이를 存續시키고 發展시킴과 같다고 할 것이다.

#### IV. 資本主義 解剖에 對한 批判

資本主義社會는 필연적으로 社會主義社會로 넘어간다고 主唱한 마르크스主義에 있어서 現在社會의 解剖는 그대로 現在社會에 對한 對策이 된다. 이것이 自稱 科學的 社會主義의 特異한 點이다.

歷史發展의 法則을 研究한 마르크스에게는 現在資本主義가 어떤 發展 過程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남은 課題였다. 그런데 社會 革命을 在來케 하는것은 意識에 있지 않고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으로 因한 生産樣式에 있다고 하는 唯物史觀에 立却하는 限 社會發展을 意識의 觀點에서 보지않고 經濟的 觀點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그는 資本主義經濟의 解剖를 企圖하였다. 資本主義社會는 필연적으로 몰락한다고 하는 그는 그것을 說明함에 있어서 理論의 두가지 支柱로서 勞動價値說과 剩餘價値說을 세웠으며 資本主義 몰락說을 구성하였다.

資本論 第2卷 序文에서 Engels가 提高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는 그 理論을 發見했다고 主張하지 않았다. 그것은 價値의 勞動理論으로서 그 世代에 自명한 眞理였고 아담스미스가 본바로 物質에 勞動者들이 追加시킨 두개의 部分 卽 賃金과 雇傭主의 利潤가운데 마르크스가 提言한 것은 두번째의 雇傭主의 利潤을 不正한 것으로 剩餘價値라고 불렀던 것이다. 마르크스主義의 全構造의 核心은 이 剩餘價値의 概念이고 이것은 勞動價値說에 基礎를 두고 있다.

勞動價値說보다 더 基礎的인 것은 價値 그自體의 概念이다. 마르크스는 價値의 意味를 明確하게 定義하지 아니 하였다. 때때로 그는 그 價値란 生産物의 固有한 特徵이라고 하며 또 어느때에는 價値와 價格을 同一視하고 또한 價値란 價格에 의하여 代表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英國의 指導的 社會主義者는 絶望하며 손을 때고 말았다. 卽 왜 마르크스는 資本論 第1卷에서 商品이 그 價値에 따라 賣買되는 傾向이 있는것 같이 그토록 자주 말하였는가物 그런데 이러한 見解는 그의 主張과는 分明히 矛盾되는 것이며 後에 그의 著書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주 分明히 했던 것이다.

資本論 第1卷에서 마르크스는 利潤이 剩餘價値에 依해서만 產出되고 勞動이 單하나의 價格 產出要素이므로 勞動의 機械에 對한 比率的 資本의 有機的 構成에 利潤率이 依存하며 이 利潤率은 技術向上과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때문에 勞動의 雇傭이 줄어들어 따라 떨어지게 된다. (利潤率의 低下) 이러한 利潤率의 低下는 資本主義生産의 危機를 가져오게 될 內的

38) 梁好民, *op. cit.*, p. 78.

矛盾으로 發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結論은 理論的 義題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릇된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 難點을 의식하고 1864年 엥겔스에게 쓴 書信에서 그것을 言及하였다.

資本論 第3卷은 1894年 發刊되고 英訳版은 1906年 시카고에서 發刊되었는데 1967年 第1卷 發刊後 27年만에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원고와 노트를 根據로 發行한 것인바 幻滅을 불러 일으켰다. (第2卷은 1885년에 發行되었다.)

利潤率이 可變資本에 對한 不變資本에 對한 關係에 依支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世界의 全資本이 考慮된다면 이것은 特定한 企業의 利潤에 적용하지 못하여 貿易狀態에 따라서 그것들이 平準化된다고 主張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論議는 료안 로빈슨 Joan Robiaison이 指摘한 바와 같이 利潤率은 每人當 資本이 增加함에 따라서 떨어지게 된다는 同義語의 반복이 된다. 우리는 勞動만이 物質的 富의 源泉이 아님을 알고 있다. 윌리엄 페터(William petty)가 말한 바와 같이 勞動은 物質的 富의 아버지이며 土地는 그 어머니인 것이다. 이와같이 하며 勞動만이 物質的 富의 源泉이 아니라면 勞動價値說이 基礎를 잃게되고 그렇게되면 剩餘價値의 概念은 또 基礎를 잃게 된다. 그러나 勞動價値說은 經濟學者들의 共通된 意見에 依하여 排斥되어 왔다. 그것은 限界 効用說에 依하여 代置되었고 이 理論은 生産物과 다른 生産物이 比較的 高客에게 가지는 効用이 存在하며 生産物의 價値가 決定된다는 것이다.

많은 勞動時間이 所要되어도 高客에게 効用이 적으면 價値가 낮을 수 있다. 反面 적은 勞動이 投入되었으나 生産物이 價値가 높을 수도 있는 것은 그 商品에 對한 需要가 크기 때문이다.

슈 페터(J.A. Schumpeter)는 勞動價値說은 完全競爭의 경우 以外에는 全無 作用을 못한다고 하였고 完全競爭下에서도 勞動이 生産의 唯一한 要因인 경우 外에는 원활하게 作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마르크스는 이 價値를 交換價値라고 불렀고 實際的으로 交換가치가 市場 卽 需要 供給의 法則 依하여 支配되고 있음을 終局的으로 是認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 理論이 勞動에서만 尊出되었다는 것을 無意味하게 만들었다.

商品이 가지고 있는 交換價値는 社會가 준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에 關하여 古典經濟學者들이 이에 發見하고 開發한 것을 따르고 있음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그는 社會가 共通의 交換比率를 確立한 調節原理가 商品속에 體화된 勞動量(卽 生産에 使用한 道具나 機械속에 蓄積된 勞動을 包含하여)이라고 主張했을 때에 스미스(Smith)가 그 표적을 남긴 리카르도(Ricardo)<sup>39)</sup>의 발자국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非難의 焦點은 商品生産에 있는데 商品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生産品을 生産한 것이다. 商品生産은 市場의 「눈에 보이지 않는 勢力」에 依하여 人間을 隸屬化한다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그는 生産手段이 私有화된 經濟體制에서만 商品生産이 存在한다고 한다. 따라서 生産手段의 沒收가 商品生産을 廢止할 것이라고 結論을 내렸다. 그러나 스탈린은 앞으로 無限定한 期間 商品生産이 社會主義國家에서 널리 行해지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39) Robert L Heilbroner, *Marxism Far and Against* W: W. Norton & Co,(1980) p. 98.

그렇다면 商品生産이 生産手段의 私有化에 基因한다는 마르크스의 生覺은 誤謬가 된다. 왜냐하면 生産手段의 私有化는 社會主義國家에는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商品은 또한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富의 單位로서 社會的 象形文字이며 單純한 物體가 아닌 보이지 않는 社會關係를 容器로서 이두가지 性格을 物神崇拜(fetishism)라고 마르크스는 불렀는데 이 物神崇拜의 中心的 持續部分은 社會的 權利와 物理的 生産性的 混同에서 오는 것이다. 卽 土地 勞動資本 모두가 有用財貨의 生産에 寄與하고 商品속에 資源의 物質側面으로 들어가며 土地의 資本도 社會的 關係인 것으로 그 所有者에게 合當한 權利를 認定해야 하는 것이다. 土地所有者가 이닌 土地自體가 生産에 寄與한 만큼 利益을 보고 있으며 資本에 對한 보수가 機械自體에 直接 支拂되는 것처럼 말하는 混難이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뒤죽박죽인 것 같이 世上을 描寫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資本論의 勞動日의 章에서 적은 賃金を 支給받는 英國勞動者들을 描寫했을 때에 언뜻 보기에 그럴듯한 面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마는 卽 剩餘價値를 抽出함을 否認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事實上 이런 條件下에서도 剩餘價値가 存在한다는 證據는 없다. 萬若 賃금이 낮으면 生産性도 낮아지는 것이다. 雇傭者들 사이에 競爭으로 利益은 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剩餘價値에 對한 마르크스의 記述은 尙한 定義減으로 有罪判決을 하는 듯한 印象을 주지마는 經驗的 證據에 依支하여 그 存在를 證明했다고는 主張하지 않고 있다. 超過利潤이 있으면 勞動에 對한 需要가 增加하고 超過利潤은 감소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價値理論을 그 體原의 礎石으로 삼고 있으나 그의 價値와 剩餘價値는 價値理論이 아닌 抽象化임을 알 수 있고 마르크스主義의 教條(dogma)의 特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모든 要因을 排除하고 複雜한 狀況에서 단 하나의 要因에만 集中하고 있으므로 그릇된 假定인 것이다.

事業擴張으로 資金의 需要가 增加하게 되면 資本의 所有者는 稀少價値를 가지게 됨으로써 市場價格을 支配하게 된다. 資本은 勞動이 使用되는 경우에만 價値를 生産한다는 마르크스의 價値理論은 不必要하게 荒唐하다.

需要보다 供給이 훨씬 많은 市場을 假定하면 價値의 概念을 거기에 導入함이 없어도 貧困現象을 說明하기에 充分한 것이 된다.

마르크스는 外見上의 自由와 平等에도 不拘하고 資本家의 利益으로 기울어지는 傾向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勞動曆 밖에 없는 勞動者의 弱한 協商力과 둘째는 競爭으로 資金이 上昇하는 것을 막아주는 機構이다. 첫째 경우에 對해서는 勞動認識과 集團的 交渉 및 多樣한 形態의 國家干涉은 狀況을 轉換시켰고 이는 産業에 따라서 다르고 경우에 따라 資本家의 確産을 超來할 수도 있다. 그래서 過去보다도 나은 狀態로 되어고 있어서 貧困의 增加法則을 無意味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경우 勞動의 需要增加가 人口成長을 자극한다는 것인데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Ricardo)가 豫期한 바 있으나 마르크스는 人口의 反射作用을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競爭에 依한 價格引上과 機械化를 들고 있는데 記述의 發達에 의한 失業은 相對的 過剩人口 卽 絶對的 人口增加와 同一復割을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著述한 當時의 自由權任의 資本主義下에 일어난 條件들에 局限시킨다면 勞動이

公正한 몫을 받지 못한 것을指摘한 것은 且置하고라도 革命에 依하기 보다는 다른 方法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勞動者에게 團結을 호소함으로써 가장 效果的인 協商者가 되는 方法中 하나를 提示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勞動者의 協商力은 政府의 政策으로 뒷받침하고 調節될 수 있다.

例컨데 後進國에서 값싼 勞動力을 收入하여 國內勞動者가 忌避하는 事業에 投入하는 것이다. 크게 問題가 되지 않는 것은 資本主義 政府가 失業을 만들어 資金上昇을 沮害하고 따라서 인플레이를 防止하는 相殺作用을 操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勞動이 보다 적은 값으로 팔리는 것은 資本 그 自體에 의하여 直接 間接으로 만들어지는 壓力이 없을 때이라고 假定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이다. 卽 剩餘價値가 아직도 存在할 條件은 勞動이 強하면 賃金이 上昇할 것도 協商力이 資本主義下의 經濟過程이나 政治的 政策으로 잠식되지 않는다면 勞動이 強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勞動組合의 強化와 福祉向上이 賃金向上이 沮害要素를 緩和할 수 있음을 是認했을 것이다. 結局 剩餘價値는 證明되지 아니한 命題이고 그 重要性은 階級鬭爭과 商品의 物神崇拜의 確認에 있을 뿐이다. 이것은 利益의 源泉에 對한 經濟學의 弱點 卽 아키레스의 발꿈치가 되어온 問題에 하나의 說明을 提供한 셈이 될 뿐이다.

剩餘價値說은 制度와 條件이 變化한 現代資本主義에서는 適切하다고 할 수 있을까? 價値는 抽象的 概念이고 乘用車 한 臺에 抽象勞動이 얼마나 化體되어 있는지 測定할 方法이 없다. 抽象的 價値의 世界와 具體的 價格과 賃金의 世界는 市場에서 밀고 당기는 것이 있다. 마르크스의 見解는 共通分母로 還元된 勞動에너지의 注入만이 있다.

價格은 實際의 費用을 反映하며 需要와 供給의 于滿을 나타낸다. 이 價格은 正確히 價値에 對應할 必要가 없다. 그러므로 이 理論은 다른 基準으로 判斷해야 한다.

루이 뒤포레는<sup>40)</sup> 마르크스의 共產黨 宣言(Manifesto)(1848)을 批判하면서 어떻게 歷史가 社會的 갈등으로 還元될 수 있으며 심지어 모든 社會的 갈등이 階級鬭爭으로 還元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例컨데 마르크스가 言及하지 못한 人種분규는 階級的 장벽과는 直接的 關係가 없다. 어떤 人種이 다른 人種에 의한 搾取되고 있다는 단순한 假設만으로 그런 현상을 說明할 수는 없다. 社會的 갈등이 階級鬭爭으로 還元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全體 文明史가 이렇게 制限된 用語로 說明될 수 있다고 生覺하지 않는다. 社會經濟的 條件으로 特定한 理念이나 藝術形式이 發生하고 收容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로 因하여 創造的 原動力 自體에 對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곤 전혀 없다. 마르크스의 兩極化理論을 보더라도 事實에 合한 더 큰 왜곡을 엿볼 수 있다.

階級構成員이 數字가 적어질 수도 있지만은 近代社會를 兩階級으로 還元시킨다는 것은 不當하다. 共產黨 宣言에 나오는 兩階級間의 對立狀態는 社會的 現實이라기 보다는 獨斷이다.

마르크스의 兩極化法則은 事實에 合한 分析보다는 主人과 노예 사이의 辨証法에 담긴 純粹哲學的 先驗性에 그 基礎를 두고 있는 듯이 여겨진다.

프랑스의 階級鬭爭은 일순간이나마 階級的敵對減을 單純化시켜 보여주는 實例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短期的으로 관찰해 보면 모든곳의 社會的 集團이 兩階級으로 환원되리라는 結論

40) 루이 뒤포레, *op. cit.*, p. 220.

으로 飛躍해 버렸다. 事實이 結論을 正當化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兩極化法則 全體가 價値를 상실한다고 하였다.

칼베즈(J.Y. Calvez)는 프랑스, 英國, 美國, 獨逸, 日本의 社會構造에 있어서 二分法的 區分에서 벗어나는 集團을 볼 수 있고, 그 自體內에서도 無限히 微分化되어 있는 中産階級은 一種의 抵抗卷을 形成하고 있는것 같다고 하고 20世紀의 政治的 事件에 휘말리면서도 부르조아나 프롤레타리아에 野合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마르크스 主義者들은 언제나 이 中産層 集團을 過去의 殘滓로서 資本主義의 마지막 階級에서 사라질 運命에 있다고 說明할 것이다. 따라서 中産層은 언제나 歷史의 本質的 進路에 있어서 우연적 要素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적인 것들이 점차 사라지는 대신 過去 100年동안 더욱 重要的 位置를 차지해 왔다. 資本主義의 마지막 危機라고 宣言된 그러한 過渡期가 너무나 오랫동안 繼續되기 때문에 간단히 無視할 수 없게 된다.

資本主義社會의 不可避的 崩壞에 對한 豫言은 바로 指導的인 共產主義 經濟學者 오이게네 바르가(Eugene Varga)의 批判을 받았다. 勿論 그의 修正主義的 觀點은 批判되었고 그 後 그는 自己 學說의 誤謬를 認定하였다. (갈릴레오도 살기 爲해서 地動說을 否認하였다) 레이 셔만(Ray W. Sherman)<sup>41)</sup>은 共產黨 宣言의 分析과 코멘트에서 社會가 두개의 敵對陣營으로 兩分되었다는 것, 그리고는 現代國家의 執行府의 首腦는 고용과 階級의 事務를 管理하는 委員會에 不過하다고 記述한데 對하여 政府가 法律을 만든것은 企業의 業務를 管理하기 爲한 것이고 그 目的은 企業을 자극하고 雇傭을 提供하며 繁業을 創造하기 爲한 것이다. 그런데 오직 고용자의 福祉만을 위한 委員會에 不過하다는 것은 누구나 그것이 眞實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醫師 변호사 僧侶 詩人 科學者를 賃金 勞動者로 轉落케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언젠스임이 分明하다. 共產黨 宣言이 어떤 部分에 있어서 마르크스는 共產主義의 家族에 對한 批判을 변호하고 있는데 家族에 對한 言及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은 國家가 맡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변호에 依하면 家族의 發達은 雇傭者들 사이에서만 可能하였고 勞動者들 사이에서나 賣春婦들 사이에서는 實際로 家族이 없는 結果를 招來하였다고 하고 고용자와 勞動者의 家族에 對하여 말한다면 資本의 削減과 더불어 兩者는 削減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共產主義의 危險성과 歪曲을 端的으로 表現하는 句節로서 家族의 解分을 通하여 人間을 孤立化시키고 強制로 國家에 屈服化시키는 人間의 奴隸化를 強要하는 句節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다시 말하기를 고용자들은 그들의 勞動者의 妻와 딸들을 마음대로 處分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賣春은 말할것도 없고 시로의 妻를 유혹하고 간음하는데 最大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하고 또한 勞動者들은 가난의 깊은 深淵으로 빠져들어 人口와 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貧困해진다고 하고 그 賃金을 고용者에게 돌리고 또 고용자 階級이 生産하는 그 生産物은 그 自身の 무덤을 파는者라고 規定지었다. 따라서 그 沒落과 勞動者의 勝利는 마찬가지로 不可避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一部 資本主義의 타락을 욕한 것인데 極少數의 例로서 마치 全體를 代表하는 것 같이 論理를 展開하는 것은 理論의 不健全性を 露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1) Ray W. Sherman, *How to Win an Argument with a Communist* E.P Dutton & Co.(1950)

마르크스는 共産黨 宣言에서 商業 그 自體와 그 膨창이 文明에 對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宣言하였다. 그러나 어떤 선택方法을 그가 提議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누구도 어떤 物件을 사라고 強要되지 않는다. 工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物體는 그것이 招來할 利益을 願하고 있는 物體인 것이다.

우리는 그 物件을 生産할 수 없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生産品을 갖다 줌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쉽고 더 좋게 하므로써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自動車와 音樂과 이에 부수적 物件들을 生産하지 못하는 商業에 輸出했다는 것이 마르크스에게는 아무것도 좋을리가 없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商業의 뒤에 따라가는 것은 保健 衛生 教育 幸福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共産主義가 商業에 代替하여 提供해 줄것은 무엇일까? 의심스럽다고 서-만(Sherman)은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고용者 階級이 시골로 하여금 都市로 從屬케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勿論 都市가 成長하고 農民은 都市에서 物品을 購入하고 있다. 그러나 農村이 없다면 都市民은 어떻게 되는가? 都市民은 그 食糧을 農村에 依存하고 있지 않은가? 또 그는 야만 國家나 半야만國家나 文明國家에 依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眞實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文明國家와 접촉하기 前에 그들 나름대로의 生活을 영위하고 왔으며 또 文明國家와의 接觸은 그들이 生産못하는 物件을 구입하기 爲해서인 것이다. 收入한 物件을 이번에는 그들 自身이 製造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마르크스에 依하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고용者階級은 그들의 이미지(image)에 따라서 이 世上을 만들어 나가게 될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假令 마르크스를 시골로 데려갔다면 그것은 所用없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卽 實際로 마르크스는 都市人이었고 都市로부터 追放되었을 때에 단지 다른 都市에 갔을 뿐이었다고 그것은 이 世上에서 가장 큰 都市에 가서 不幸하게 죽었기 때문이다.

万若 美國에 있어서 共産主義가 그의 使命을 다하기 爲하여 農村生活의 自手知로부터 사람들을 救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 될것이라고 한다. 卽 600萬의 農家와 10億에이커의 땅에서 2,500萬의 人口를 救濟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主張은 고용者들이 少数의 손에 財産을 集中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簡單히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卽 이 事實은 共産主義의 哲學을 그 뿌리로 부터 침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작은 企業들은 한사람 또는 少数의 손에 所有되고 있으나 大企業의 所有權은 株式으로 分散되어 數많은 사람들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General Motors의 所有權은 43萬名의 사람들 손에 있었고 General Electric會社는 25名의 사람들 손에 그리고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會社는 80萬名의 손에 그 所有權이 屬해 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이른바 貧民인 프롤레타리아인 것이다. 또 前述한 바와 같이 그 所有權은 機能이 分化하여 各其相異한 사람들에게 歸屬되어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勞動者들이 貧民이라는 事實에 對하여 共産主義者들은 다음의 事實을 說明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卽 美國의 3,000萬台(1950年) 自動車가 1억8천萬台(1988年)로 急激히 增加하고 있는 數等을 한편 勞動時間은 分明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補償은 自然스러운 發展이다. 今世紀初에 美國의 工場 勞動時間은 7-12時間이고 週

6日制로서 1-6時間이다. 또 濠州의 法律에는 「工場 事業場 事務室에 關한 法律」이 있고 여기서 午後5時가 지나면 電燈을 밝게 켜놓고 모든 사람은 밖으로 나가야 한다. 卽 剩餘勞動을 하는지 監視할 수 있도록 電燈을 켜 놓은채 勞動者는 모두 歸家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flexi time이라는 出勤時間制度는 自己가 便利한 時間에 出退勤을 하는 制度로서 資本主義下의 이러한 制度를 마르크스가 이렇게 論評할 것인지 興味있는 일이다. 마르크스가 勞動大衆이 兵士처럼 組織되어 完全한 將校들의 命令下에 있다고 했을 때에 그는 組織의 概念을 確實히 몰랐던 것이다. 事實上 勞動者는 適切하게 指導되기를 비라고 있는 것이다. 勞動者는 企業組織이 軍隊처럼 作動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저주(anathema)처럼 보였던 것이다.

레닌의 帝國主義에 關한 分析은 巨大한 社會들이 그들의 資本을 植民地 地域보다도 오히려 工業國家에 投資하기를 좋아한다는 事實과 植民地 支配를 거의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同時에 諸工業國의 經濟가 크게 上昇하고 있다는 事實에 依해서 그 矛盾이 드러난 것이다.

로스로우의 非共產黨 宣言을 통하여 經濟成長의 五段階을 敘述하고 各 成長段階에 있어서의 政治的 經濟的 諸問題를 다루고 있다. 1959年 8月15日 및 22日號 The Economist誌에 실린 이 論文에서 로스로우教授는 마르크스의 誤謬를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조안 로빈슨(John Robinson)女史의 니콜라스 칼도(Nicholas Kaldor)氏가 最近 強調한 바 事實에 있어서 人口는 失業豫備軍을 유지해 갈 수 있을 만큼 增加하지 않고 競争的 資本主義는 경제를 甞는 것이 아니라 實質 資金의 上昇을 甞는 것이다. 이러한 誤謬는 諸社會에 對한 마르크스의 基本的 가정을 直接的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政治的 社會的 又是 經濟的 變遷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財富의 存在로 되어 있다는 事實에 本 質上 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競争은 獨點의 價格을 甞는 것이 아니라 競争은 不完全한 形態의 價格을 甞는 것이다. 純限界生産價格에 일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勞動組合의 受諾은 民主的 過程에서 發生하는 政治的 諸介入에 依하여 이러한 傾向이 增加되었다. 더욱이 集團的 進化의 自體(마르크스의 分析에서 除外되었다)는 産兒率에 對한 非합리적 阻止를 생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福利가 支配의 力이 되었을 때에 進歩는 各層에 配當되었고 階級間的 鬭爭은 強化되었다. 성숙이 達成되었을 때에 그들은 大變革 難局에 當面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選擇에 當面하였다. 卽 福祉國家對象의 大量消費 또는 世界 舞台上의 支配權사이의 選擇을 그 反面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福利(Compound Interest)는 利潤을 蓄積하는 邪惡한 形態로 나타나 있고 단지 사치스러운 資本家의 生活 使用 不能한 施設 및 戰爭에만 使用된다는 것이다. 獨點에 關하여 말한다면 美國은 産業集中度가 지난 50年동안 그렇게 현저하게 增大하지는 않았고 西方諸國에서도 大同小異하다. 産業集中의 增大한 곳은 大規模 研究와 經濟發展에 立却했던 것이며 小規模 企業이 市場 環境에서 生活할 수 없기 때문이다. 集中의 持續은 政治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失業에 對해서는 1914년까지의 失業의 振幅循環은 增大하지 않았고 1930年代 不況은 大量消費에로의 卽刻의 移行을 할 수 있는 기구를 西歐社會가 造成하지 못하였고 美國에서도 1929年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完全雇傭을 保障하는 公共政策을 振興 造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收護遞減의 法則은(마르크스가 利潤低下論에서 論한) 人

42) 로스로우, 非共產黨宣言 思想界(1960, 1) 通卷 78卷 p. 147.



間이 生産活動을 擇하는 限 生産의 對象이 欠하지 않을 거시다. 로스로우는 끝으로 成熟 資本主義의 植民地 依存說을 言及하고 있다.

植民地 主義가 事實上 죽었으나 西方資本主義는 成長一路에 있고 共產主義의 希望은 輸出市場을 爲한 鬭爭이 아니라 資本主義가 國內市場에 지나치게 執着하는데 있다. 마르크스의 理論體系는 1848年 英國의 飛躍期에 形成되었던 것이고 資本論의 未完成은 마르크스 自身の 과오를 認識했음을 反映하고 하는 學者가 있으며 그 과오란 西歐社會에 있어서 產業資金의 上昇이며 勞動階級이 資本主義 概念을 受諾하는데 나타났던 것이라고 하였다.

以上과 같은 로스로우의 成長論에 對하여 프라우다誌는 1959年 11月7日字 이코노미스트誌에 批判을 通하여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即 그는 쏘련이 經濟적으로 美國보다 빨리 發展하고 있음을 認定해야 했다고 하고 로스로우는 故意的인 거짓말을 前述하고 있다. 資本主義 늪에 있는 노래하는 새의 運命은 부러워 할만한 것이 못된다. 그들의 고달픈 生活은 하기 爲하여 그들은 수치와 양심을 잊어버리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 늪속의 鶻새(Snipe in the Bag)라는 題目의 이 論文을 쓴 류코스씨는 다음과 같이 로스로우教授의 글을 공격하였다.

南北戰爭以後 美國에서 大陸의 工業化에 必要한 諸事業을 한것은 단지 돈을 만들기 爲한 것이 아니었을 뿐아니라 權力, 冒險, 排戰 및 特權을 追求한 까닭이었다. 事業擴大와 營利는 人間動機의 充分한 範圍內에서 補償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 및 그 子孫들이 훌륭히 쓰고남을 돈을 만든後의 꾸준한 努力의 繼續을 어떻게 說明할 수 있었겠는가? 문어의 觸手같이 美國을 쥐고 있는 록펠러나 그 동료들이 이룬 諸獨點을 利得을 爲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말하는 것 같다.

로스토우氏가 우리에게 保證하는 바는 그들은 모험을 爲하여 活動하였고 利得은 그들의 關心事가 아니었다는 것이라라고. 또 1959年 8月22일에 이코노미스트誌에 揭載된 編輯者의 코멘트는 러시아政府가 새가지 選擇에 直面해 있다고 하고 大衆의 大量消費인가? 世界支配인가? 또 福祉國家인가? (即 人間의 權威와 自由인가?) 로스토우 教授의 글이 시사하는 바는 二重의이며 一方에 있어서 世界支配의 企圖가 매력적이 못 되도록 하여 世界支配를 不可能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심보 고약한 코끼리의 心理分析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였다.

生覺컨데 쥬코브의 反論은 資本主義를 不必要하게 憐憫의 눈으로 보면서 社會主義國家의 優位를 主張하고 世界 支配의 關心을 露出하며 모든 事業動機를 經濟的 傾向에서 보는 見解를 유지하면서 政治的 視覺에서 經濟理論을 바라보고서 하는 그들의 習性을 露呈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期待했던 資本主義의 生産의 停滯는 아직 그 徵兆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다. 資本主義가 가장 發展해라고 말할 수 있는 美國에서 年平均 3%以上 勞動의 生産性이 向上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 資本主義國家들이 共產主義國家들보다 經濟成長의 指數에 있어서 매우 앞서고 있다. 万若 資本主義의인 生産關係가 生産力의 發展을 阻害하게 된다면 그것은 記述, 發展과 生産性 向上의 停止를 말하는 것이 될것인데 그런 徵兆는 아직 生覺할 수 없다.

43) 로스로우, 非共產黨宣言 思想界(1960, 3) 通卷 第80卷 p. 110.

## V. 社會主義에 對한 批判

마르크스는 社會科學徒로서 資本主義를 解剖하였을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에 대체되는 것으로서 社會主義社會를 豫想하고 그 實現을 爲한 實踐運動에 분망하였다.

마르크스의 主張에 依하면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로 移行하는 過程에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段階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約束은 混迷와 紛爭의 繼續的 存續으로 特徵지워졌다.

마르크스主義 運動은 混迷한 勞動者 階級の 生覺과 이 敎義의 目的과를 和解시키고저 하였고 또 反共 警察의 活動과 資本主義의 變化하는 분위기와 制度的 現實이 있었다. 또 카우츠키(Kautsky) 燈과의 論爭을 爲始한 內的 鬭爭이 있었다.

레닌은 共產主義가 高度局面에 到達했을 때에 各者의 能力에 따라 일하고 各自의 必要에 따라 獲得한다는 原理의 實現을 爲하여 形式的 平等에서 實質的 平等으로 前述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英겔스의 平等의 要求는 階級이 廢止하였고 스탈린은 平等의 原理를 規制的 觀念에서 조차 拒否하였다. 그는 賃金平準化의 主張을 처벌하기까지 하였다. 스탈린은 個人崇拜을 大衆에게 強要하였다. 토로츠키가 스탈린體制를 反歷史的 反動體制로 規定한 것은 바로 그때문이다.<sup>45)</sup> 事實 獨裁體制가 強化되면 個人崇拜에서 神格化로<sup>46)</sup> 나아간다는 것은 歷史的 傾向이었던 것이다. 卽 로마皇帝때에도 그랬고 日帝의 天皇도 그러하였다. 스탈린 主義 以外에도 朝鮮의 抑壓의 官僚가 있었다. 西歐 마르크스 主義者는 朝鮮을 國家社會主義라고 부르고 있다. 또 共產圈內의 不和와 內紛이 있었다. 1920年 朝鮮 共產黨 CPSUDML 指令이 中國 共產黨 CCP를 確滅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일이 許多하였고 1948年 스탈린은 유고(Yugoslavia) 代表團에게 이야기하기를 戰後에 莊介石과 손잡고 바르네트(Barnett) 교수 燈에 依하면 1948年 中共의 勝利는 스탈린이 期待하거나 그 指令方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sup>47)</sup> 그밖의 古巴(Cuba)와 유고슬라비아(Yugoslavia)의 若干 溫和한 獨裁가 있고 中共의 毛澤東의 思想統制와 個人的 神託 政治가 있었다. 周邊에는 또 惡하고 社會主義를 조롱하는 알바니아(Albania) 캄보디아(Cambodia) 아프리카(Africa)가 있다. 고문戰爭 榨取燈에서의 連累를 基督教의 判斷으로는 참을 수가 없다.

소련과 中共의 非人道主義는 마르크스 主義世界의 主된 革命勢力의 中心이 되었고 그것은 革命이 自由의 傳統이나 約束 又は 經驗이 없는 나라에서 일어났다는데 그 原因이 있었다.

마르크스와 英겔스는 「도이치이데올로기 Die Deutsche Ideologie」에서 社會主義의 以上을 描寫하고 있는데 아침에 사냥하고 午後에 낙심하며 저녁 때에는 소를 치고 저녁식사 후에는 批判을 하며 願하는 대로 하되 사냥군 漁夫, 半치기 批判家가 되지는 않는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또 資本論에서도 勞動者 聯盟이 그들의 勞動을 自由로히 規制하고 그들의 自然과

44) 具永祿, 共產主義에 있어서 平等根本念의 否定的 展開過程에 關한 研究 서울大開校 30週年 紀念 論叢 第1卷 1972, 4, pp. 152-154.

45) 金學俊, *op. cit.*, p. 90.

46) 梁秉祐外 大世界의 歷史 第3卷 三省出版社(1971), p. 106.

47) 河環根, 共產圈의 內紛問題 中央大論文集 第7輯, 1962, p. 213.

의 交渉의 條件을 自由롭게 定한다고 하였다. 이 變德 外에는 한마디로 全體의 일을 可能케 할 組織 構造 그것에 對應할 生産의 記述의 複雜性的의 과정에 말이 없다. 모든 問題를 未來에 미루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未來생활 展示會의 都市의 影想처럼 幻想(phantasy)에 不過하다. 엥겔스는 「反뒤링論(Anti-Dühring)」에서 豫言하기를 國家干涉이 점차로 不必要하게 되고 人間에 對한 統治가 事物管理와 生産管理 調整으로 代置되는 때에 國家는 消滅한다고 하였는데 그 時期가 언제 到來할 것이냐 하는 問題에 對하여 해롤드 라스키(Harald J. Lashi)는 同情的으로...그 過程은 긴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그 持續時間의 限界를 設定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48)</sup>

그 解決이 未來에 일어날 것이라 하고 하는 것은 強點이 아니라 오히려 弱點인 것이다.<sup>49)</sup> 勞動이 分業이 가져오는 單調함과 때때로 危險하며 또 더러운 高速인 鑛業 製造業 輸進業 그리고 지겨운 管理業務 燈이 資本主義와 社會主義間에 크게 다를 것이 없다. 非人間的의 分業과 高度의 記述에 依하여 支配되는 生産工程의 性格을 變更하여 資本主義의 그것과 다르게 再設計가 必要할 것이다. 또한 社會의 物質的 基礎에 對한 再設計가 必要할 것이다. 이러한 轉移가 大量의 命令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러한 統制力의 남용은 自由의 問題를 生覺하게 한다.

마르크스는 부르조아의 自由의 概念속에 卽 經濟的 自由의 福祉위에 세워진 自由의 概念에 감추어진 不自由를 分析하는데 關心이 있었다.

共產黨 宣言은 社會主義에 對한 여러가지 公約을 提示하고 있으나 社會的 政治的 生活에 對하여 言及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 그속에서 自由에 對한 가장 큰 危險을 보고 있는 것이다. 共產黨 宣言은 政治的 反對者 市民의 權利 社會的 性的 解放 그리고 知的 自由에 對한 熱望이나 宣言이 없다. 또 共產主義가 家族을 철폐할 것이라는 非難에 對하여 考慮하지 아니한다. 마르크스는 人間의 概念을 社會關係의 全體(ensemble)로 보고 또 資本主義의 政治 社會的 知的 自由가 잘못된 根據에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것에 對하여 關心이 없었다. 그 잘못된 根據라는 것은 資本主義의 人間은 契約 關係 以外에는 人間을 孤立化하고 人類란 이러한 孤立한 人間의 단순한 集合이라는 것이다. 本來 恒存하며 根絶되지 않는 人間의 社會性을 資本主義는 모르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社會의 人間을 말할 때에 그 人間이란 結局 自律的인 節約된 人間을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個人이 어떤 意味로는 社會에 앞서서 存在하고 社會없이도 個人을 生覺할 수 있다는 그 出發點을 批判하는데 關心이 있었기 때문에 社會가 個人의 自由生活에 最高限度로 干涉하는 問題에 對하여 深刻하게 檢討하지 아니 하였다.

社會關係 全體로서의 個人의 概念은 人間의 心理의 存在를 否認하게 된다. 社會的 設定 關係로 만들어진 것 以外에는 定義가 없는 것으로서 人間을 보면 그 代價를 支給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리하여 마르크스主義는 政治權力의 增大의 企徒가 이루어지는 것을 豫見하지 못하였다. 헤겔은 世界精神의 目的이 自由의 實現이라고 하여 國家는 自由의 眞正한 領域이라 하였는데 또 東方은 오직 한사람만이 自由라는 것을 알고 게르만 世界는 모든 사람이 자

48) 具永祿, *op, cit*, p. 148-149.

49) Robert L. Heilbroner, *op, cit*, p. 86.

由라는 것을 안다고 하였는데<sup>50)</sup> 이렇게 增大된 政治權力下에 自由는 가장 큰 危險을 보고 있는 것이다. 自由에 對하여 東洋의 老子는<sup>51)</sup>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偉대한 사람이 支配하고 있을 때에는 國民은 오직 그 사람이 現存해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이에 比해 보다 작은 사람(支配者)은 칭송 받고 다시 더 작은 사람들은 경멸받는다. 가장 훌륭한 支配者는 사람들에게 意識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가지 일이 成就된다. 그러나 百姓들은 말한다. 우리는 自由리라” 이와같이 老子의 自由는 그 程度가 한 次元 더 높은 水準에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새로운 貴族 階級이 이에 隨伴하여 共產主義內에 發揚할 可能性을 마르크스는 豫見치 못했다고 마카이스키(Waclaw Machajski)나 또는 막스 노마드(Max Nomad)가 說明하고 있다. 마카이스키는 社會主義가 결코 모든 形態의 노예制度를 廢止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政擊은 오직 한 類型에 不當한 資本主義 階級の 支配에 對한 공격이었다고 論及하였다. 社會主義의 勝利는 教育받은 支配者를 保障해 주고 國家의 剩餘價値는 高額俸給의 形態로 박학한 勞動階級에게 割當되어진다고 하였다. 노마드는 資本家에 代身하여 官職占有者와 記述者가 새로운 搾取制度를 發展시켰다고 하였다.<sup>52)</sup>

大部分의 마르크스 主義者에게는 플라톤 알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베리 홉스 밀 또는 토크빌 등이 人間의 政治의 탐욕에 大하여 主義를 喚起시켰을 때 그것은 이들 著者에 關하여 文化와 階級の 連結性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이들은 變化된 社會環境의 治療의 效果를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看過되고 있는 것은 文化와 階級の 連結이 받아 들여지고 있는 그 말 속에는 眞實의 要素가 있다는 것 卽 人間의 性格에는 橫暴과 默從의 要素가 있고 慎重한 사람은 그 存在를 認定하나 그것을 無視하는 者는 스스로의 危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結果的으로 今世紀의 歷史가 明白히 하고 있는 것은 資本主義의 弱점이 經濟學이라면 社會主義의 弱점은 政治라는 것이다.<sup>53)</sup> 이 아키레스의 발뒤꿈치는 그 逆機性(dystunctions)의 集中이 이루어진 것 뿐만 아니고 自己 理解의 能力이 傳來的으로 制限되고 있다는 欠點인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있어서는 다음 世代의 가장 큰 問題인 人口 核 公害問題와 民族主義의 問題를 豫見하지 못하였다. 故로 마르크스는 豫見的 視野의 角度가 만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로서 보편적 概念의 民族主義를 否定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民族主義와 마찰없이 結合된 현상을 보이면서 革命을 이끌어간 것이다. 이것은 敵의 敵은 同志가 될 수 있다는 戰爭論理에 따라 反帝國主義敵 鬭爭을 옹호하고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立却하고 철저한 反階級敵 革命敵 要素를 除去한 前提 아래 革命運動과 民族運動의 結合을 꾀하였고 反帝國主義를 표방한 民族主義變容은 共產革命의 必要에서 고려된 戰述일 뿐인 것이다. 二次大戰后의 共產主義는 初期의 그 豫想과는 달리 革命對象 地域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긴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것은 勿論 레닌의 東方 迂迴戰畧(勿論 이는 西方의 原料차단의 戰畧敵 意味

50) 梁好民 *op, cit*, p. 67.

51) 李元燮譯 老子 三中堂文庫, 1979, p. 151.

52) 具永祿, *op, cit*, p. 157.

53) Robert L. Heilbroner, *op, cit*, p. 164.

도 있지마는)으로써의 膨脹政策과 中共, 아프리카, 新生國家를 中心한 第三世界의 反霸權主義가 政策對決하므로써 共產主義運動의 國際敵 一元化體系가 무너지게된 結果를 낳고 있는 것이다.<sup>54)</sup>

人種差別 女性解放論의 두問題는 階級關係만으로는 適切히 다룰 수 없다. 이는 마르크스主義에 있어서 하나의 問題인 것이다. 全體主義 政治思想의 一面을 보여 주는 것은 民族의 差別 階級の 差別 男女의 差別을 두지 않는 것인데<sup>55)</sup> 例컨데 基督教 原理도 이에 立却하고 있는 것과 같이 共產主義도 그러하다. 소련을 訪問하는 外國人들은 女子들이 遂行하는 重勞動을 보고 놀란다. 女子들은 火夫, 船員, 地下鐵夫로서 勞動한다. 이러한 따위의 平等權은 실로 女性器官의 肉體敵 不平等을 無視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1944年 女子들도 時間外 勞動과 夜勤이 許容되었으나 이 法律은 스탈린의 후계자들에 依하여 部分敵으로 廢止되었다.<sup>56)</sup>

國家에 對한 潛在的 抵抗勢力으로서 財產權에 比較할 수 있는 半獨立的인 權利의 構造를 創設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完全히 本開發私態로 남아 있다. 政府機關 가운데 機能과 効力の 적절한 配分問題같은 것은 檢討할 關心이 없었다. 判事와 公務員을 選舉하거나 除去되는 問題 選出한 代議員의 적절한 態度 其他 이에 類似한 民主的 生活方式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다.

獨立的인 言論은 政治的 反對者가 收入을 保障받는 方法이기도 하며 黨에리트가 統制를 받는 方法이기도 한 것인데 이러한 問題에 對하여 마르크스主義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리하여 가장 危險스러운 政治生活의 傾向이 마르크스 主義下에서는 等閑視되고 있으며 制度的으로 記述될 수 없는 政治行態의 方式인 參與的 民主主義(participatory democracy)에 依하여 解決될 수 있다고 宣稱되고 있다. 마르크스主義下에 있어서 政治的 社會的 知的인 權利와 自由가 그 性格과 細目指定이 當然한 것으로 生覺하는 것은 그 權利와 自由의 兩立可能性에 問題가 있는 것이다. 卽 個人的 優越性은 마르크스가 가장 날카롭게 批判하는 것으로 모든 마르크스主義者가 個人이 社會의 產物이라는 觀念을 強調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資本主義가 個人的 中心의 重要性을 宣稱하는 것처럼 社會主義 秩序는 그 價値와 知覺의 對象에 그리고 社會的 思想의 注入(indoctrination)에 있어서 끈덕지게 波及的으로 이 概念의 實現을 企圖할 것이다. 그리하여 社會意識(Social Consciousness)의 波及的 培養에 依하여 그 自體의 文化를 尊重하게 되고 社會主義的 社會經濟的 氣風이 神聖視되고 道德的으로 說明 가능한 것이 되어 精神의 重要聖으로 充滿하여 卽 集團的 道德目的의 觀念으로 充滿하게 되어 드디어 이 社會는 宗教的 社會으로 變質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聖人의 탄생도 容氣의 鼓吹와 禁慾主義도 自己犧牲도 多樣한 心理的 經驗도 可能的 社會로 變質하게 될 것이다.

요셉 보헨스키는 共產主義가 宗教的 性格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認定하였다.<sup>57)</sup> 또한 共產主義哲學과 理論은 神話的 未來社會에 對한 유토피아의 비전에서 그 絶頂에 達한다. 神話的

54) 孔眞斗, 共產主義의 民族主義觀 檀國大大學院 學術論叢 第2輯, 1978, p. 152.

55) 韓太壽, *op. cit.*, p. 220. 具永祿, *op. cit.*, p. 153.

56) 보헨스키, 니이마이어, 共產主義批判全書 第4卷 韓國反共聯盟, 1966, p. 211.

57) *Ibid.*, p. 263.

未來에 對한 敎理는 英겔스가 定式化하였다.<sup>58)</sup>

케인즈(John Mavnard Keynes)는 非論理的인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이 그 社會主義와 함께 思想家에게는 驚異의 存在이나 強力하고 長期的인 그 影響을 저주의 말로써 表現한바 있다. 또 個人과 國家間의 自由, 安全, 平和의 교란을 非難하고 科學的으로 틀렸고 재미도 없고 낡아빠진 經濟學 敎科書를 批判없이 聖書처럼 보는 敎義에 對하여 새로운 宗教로서 存在할 것이라 하였다.<sup>59)</sup>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初期資本主義社會를 철저히 分析하고 批判하려고 꽤 애를 쓴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未來의 理想의인 社會를 盲目的인 情熱을 排除하고 철저히 構想하는 일은 소홀히 했다. 그래서 스스로 批判한 社會보다도 더 무서운 疎外된 社會를 結果하고 있다. 理性과 協力を 통해서만 人間은 늘 그의 삶의 問題들을 克服할 수가 있다.

## VI. 結 論

至今 이 순간 地球上에서 일어나고 있는 事件들 가운데 가장 重要하고 뜻깊은 것은 고르바초프現象이다. 고르바초프革命은 레닌打破라는 口號만 없는 事實上的 레닌克服이라는 것이요, 그의 革命은 마르크스主義를 唯一無二한 神學的 眞理의 地位로부터 여러가지 社會主義의 潮流가운데 하나라는 地位로 世俗化시키는 結果를 빚고 있다. 唯物史觀의 根本的過誤는 歷史發展의 原動力이 人間의 精神的 目的活動이 아니라 物質이라고 함에 있다. 辨証法的 唯物論은 眞理란 實在의 描寫요 反映으로 實在와 符合하는 것인데 史的唯物論은 眞理를 社會實用的으로만 規程하므로 階級的의 必要에 符合하여 眞理가 하나뿐이 아니라 階級的의 數만큼 있게 된다는 것이다. 辨証法에 依하면 世界는 累進的으로 되어 飛躍에 依하여 여러 層으로 나누어지는데 唯物論은 事物이 오직 物質的이라 하여 모든 事物이 進化論으로 反映되는데 辨証法的 唯物論으로는 精神과 物質의 差를 區別할 수가 없다.

勞動의 質이 다른 경우에도 勞動價値說은 그 等質化를 假定하므로 不當하다. 마르크스에 依하면 勞動의 比率이 높은 輕工業部門에 利潤率이 높고 重工業部分이 낮아야 한다. 實際는 그렇지 않다. 利潤이 높은 곳으로 生産要素가 移動하므로 모든 産業을 通하여 平均化되는 傾向이 있다고 主張한다. 그러면 投下勞動量으로 決定된 商品價値와 生産費에 平均利潤을 보탠 現實의 商品價格은 一致되지 않는다. 現實로 勞動을 必要로 하지 않는 土地, 水力, 溫泉, 油田 등이 많은 價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마르크스가 分析하지 않았음은 잘못이다. 勞動이 價値尺度라면 勞動自體는 그 價値를 무엇으로 說明하는가? 勞動의 基本이 되는 生活資料는 勞動生産物이므로 勞動의 價値는 勞動生産物로 또 그것은 勞動으로 說明하는 循環論에 빠지게 된다. 結局 剩餘價値는 存在한다는 證據가 없고 賃金이 낮으면 고용자는 競爭하여 利益이 零이 된다. 이는 價値理論이 아닌 抽象化이다.

프롤레타리아의 獨裁는 抑壓政治를 正當化하며 歷史形成에 危險을 준다. 그의 理論은 經濟的 基礎를 作動시키는데 多數의 非經濟活動을 度外視하고 있다.

58) 요셉, 보헨스키, op, cit, 第1卷 p. 101.

59) 白尙健, 共產主義政治理論批判, 共產主義理論과 實際, 反共聯盟, 1968, p. 98-99.

東洋의 老子思想에 비추어 볼때 共產主義의 理想은 比較되지도 않는 낮은 階級の 水準에 머물러 있다. 비록 그것이 神話와 같은 未來觀(Eschatology)에 잠겨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것이 마르크스의 祖國인 傳統信仰인 來世의 千年 王國說(Chiliasm)에 根據하고 있다고 假定하여도. 마르크스·레닌主義가 資本主義의 所有權을 否認하지마는 株式制度에서 보는 바와 같이 株式이 分化하여 그 機能의 歸屬이 多數人에게 國民株와-從業員持株制度 等으로 勞動者를 包含하여-이루어지고 있다.

社會階級の 二分法은 獨단이며 循環의 宇宙法則은 마르크스의 運動法則을 包括하는 것이고 그것은 部分이면서 全體인것 같은 自覺에 몰입되어 있다.

私有財産과 宗教의 存在價値는 秩序維持와 平和에 그 根本이 있고 個人的 主觀的 信仰告白과 良心이나 世界觀은 그의 自由의 領域에 屬하며 他人의 恣意에 依하여 評價할 領域을 벗어나는 것이다.

經營參加, 團體交涉으로 불리우는 一聯의 方式으로 勞動者의 地位도 向上되고 그들의 福祉 向上과 賃金沮害要素도 많이 緩和되었다.

共產主義는 스스로 改革할 수 있는 能力이 없으며 昨今の 東歐事態는 지난 40年 以上 적어도 外形上으로 굳건히 維持되어온 마르크스·레닌主義가 종말로 치닫고 있음을 反證하는 것이다.

나쁜 政治가 스스로 改革을 표방할 때가 가장 危險하다는 政治思想家 알렉시스 토크빌의 指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共產主義는 生存을 爲하여 最后까지 버틸 것이다. 그러나 그 虛構性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